

#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 나타난 藥物 運用에 관한 考察

- 張山雷의 『臟腑藥式補正』을 중심으로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相協\*

## A Study on the Medicinal Application in the *Zangfuxushibiaobenyongyaoshi*

- Based on the *Zangfuyaoshibuzheng* of Zhang Shanlei -

Lee Sang-Hy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 Based on the *Zangfuyaoshibuzheng* of Zhang Shanlei, this paper examines the tip/root division of the Zangfu, features of medicinal application according to deficiency/excess or cold/heat, and erroneous cases in the *Zangfuxushibiaobenyongyaoshi* of Zhang Jiegu.

**Methods** :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ip/root, cold/heat, deficiency/excess and respective medicinal applications in the *Zangfuxushibiaobenyongyaoshi* were organized, followed by thorough analysis based on the annotations in the *Zangfuyaoshibuzheng*.

**Results** : First, in the treatment principle of the Zangfu diseases, each of their physiological function and pathological mechanism were analyzed so that the disease patterns are understood accurately and treated accordingly. Second, in categorizing treatment methods, terminology application was modified in overlapping or ambiguous cases so that they could be better distinguished. Third, medicinal categories that were designated to treat each Zangfu disease were explained well based on unique features. In cases where medicinals were falsely included, they were identified and corrected based on sound reasoning.

**Conclusions** : The pattern diagnosis in the *Zangfuyaoshibuzheng* is clear, and medicinal application analysis is intelligible. As it thoroughly corrects and revises errors in Zhang Jiegu's theories, it could provide valuable assistance in selecting each medicinals when treating disease patterns of the Five Zang.

**Key words** : Zhang Jiegu, *Zangfuxushibiaobenyongyaoshi*, Zhang Shanlei, *Zangfuyaoshibuzheng*

\*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hyup.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52-57 Yangjeonglo, Busanjin-gu, Busan, 47227, South Korea

Tel : \*\*\* - \*\*\*\* - \*\*\*\* E-mail : sanghyup@deu.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anuary 28, 2023), Revised(February 7, 2023), Accepted(February 7,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緒論

張元素의 字는 潔古이고 金代의 易州人(지금의 河北省 易水縣)으로 후세 사람들이 그를 易水老人이라고 존칭하였다<sup>1)</sup>.

그가 저술한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은 주로 『靈樞·經脈』편에 나오는 是動·所生病의 내용과 『素問·至真要大論』편에 나오는 十九病機를 중심으로 하여 병증을 정리하였는데, 五臟六腑를 綱領으로 해서 그 本病·標病을 서술하고, 虛實·寒熱·標本을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에 瀉法·補法·清法·溫法·散法 등의 治法을 세부 목록으로 해서 관련 藥物을 분류한 것이다.

처음에 『本草綱目』의 序文에서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데, 著者が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래 單行本도 없었다. 清代의 趙雙湖가 이 책을 『醫學指歸』 안에 실으면서 약간의 註釋을 가하였고, 清代의 周學海 또한 이 책을 『周氏醫學叢書』에 수록하였는데, 이때부터 金代의 張元素가 저술한 것이라고 쓰기 시작하였고, 근대에는 張壽頤가 補正해서 3권으로 늘려 『臟腑藥式補正』이라 개명하였다<sup>2)</sup>.

張壽頤(1873~1934년)는 清代 말기에서 民國時期에 걸친 醫家로, 字는 山雷이고, 江蘇省 嘉定人이다<sup>3)</sup>.

張山雷의 『臟腑藥式補正』은 원래 金代 張潔古가 지은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 대하여 注釋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補充하고 잘못된 부분을 校正한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은 “말하는 것이 상세하지 못하여,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닫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며, 그렇다고만 말하고 그 ‘所以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sup>4)</sup>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하나의 분류 중에 열거한 각 藥物의 性情과 分量에는 각각 專長(특히 뛰어난 부분)하는 것이 있는데, 藥物의 효능이 趨向하는 방

향이 어찌 일률적으로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sup>5)</sup>라고 하면서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사용한 약물 중 잘못 묶여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모든 條項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연구하다가 옛날 사람들의 誤謬로 의미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금 바르게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였다.”<sup>6)</sup>고 하여 張潔古의 분류나 약물의 목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면서 補正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sup>7)</sup>과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의 標本病 구분에 대한 考察”<sup>8)</sup>과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sup>9)</sup>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약물 운용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張山雷의 『臟腑藥式補正』을 중심으로 張潔古가 臟腑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분류한 目錄과 藥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분류한 ‘所以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論

張潔古는 臟腑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虛實·標本·寒熱’로 구분하여 治療法과 함께 해당 藥物을 나열해 놓았으며, 張山雷는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病證·病機와 함께 해당 藥物을 선택한 이유와 그 正誤에 대하여 각 조항마다 분석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肺

1) 嚴世芸 主編. 金達鎭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대성의학사. 2011. p.472.  
2)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1939.  
3)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1942.  
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0.

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0.  
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0.  
7) 金容辰 外1人.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原典醫學會誌. Vol 4. 1990.  
8) 金鍾鉉 外3人.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의 標本病 구분에 대한 考察. 大韓原典醫學會誌. Vol 26(4). 2013.  
9) 宋美令 外1人.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會誌. Vol 11(1). 1998.

張潔古는 肺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氣實瀉之, 氣虛補之, 本熱清之, 本寒溫之, 標寒散之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張山雷는 이것 이외에 ‘標熱疏之’가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氣實瀉之

‘肺主氣’하기에 肺病은 氣의 虛實로 치료법을 구분한 것으로, 이곳에서의 ‘氣實’은 邪氣가 왕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瀉法을 사용한 것인데, ‘瀉子, 除濕, 瀉火, 通滯’의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치료하고 있다.

#### ① 瀉子

이곳에서의 ‘子’는 金의 자식인 ‘水’를 말하는 것으로, 肺(金)와 관련해서는 膀胱(水)이 생리적으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氣가 清肅하면 通調水道<sup>10)</sup>가 되면서 膀胱이 壅滯하여 생기는 질환이 안 생기는데. 膀胱이 蘊熱하면 水氣가 橫溢하면서 肺金 또한 肅降시키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肺家가 閉塞’하여 宣發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肺竅를 소통함으로써 下行을 순조롭게 회복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膀胱을 消導하여 下流가 막힌 것을 터주어야 하는 것도 있다.”<sup>11)</sup>고 하면서 질병이 발생한 상황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치법 또한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았다.

張潔古는 이때 사용하는 약물로 ‘澤瀉, 葶藶子, 桑白皮, 地骨皮’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이 중에 ‘澤瀉’는 膀胱蘊熱로 濕熱이 壅滯되어 생기는 小便不利 증상을 전문적으로 瀉하는 것이고, ‘葶藶子, 桑白皮, 地骨皮’는 肺熱을 清泄함으로써 水氣를 하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② 除濕

胃中에 있는 濕痰이 肺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기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形寒寒冷하면 肺氣가 壅塞하여 운행하지 못하면서 津液이 凝滯되어 水飲이 형성된다. …… 그러므로

肺家の 實邪에는 痰飲이 가장 많다.”<sup>12)</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除濕하는 약물로 ‘半夏, 白礬, 白茯苓, 薏苡仁, 木瓜, 橘皮’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의 邪氣를 瀉하는 약물은 대부분 除濕消痰시키는 약제가 많다.”<sup>13)</sup>고 보았다.

#### ③ 瀉火

肺는 嬌臟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최고 柔軟하므로 火의 灼傷을 받게 되면 津液이 손상되면서 변화가 많은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만약 肺가 火邪를 받는 것으로 논할 것 같으면, 肺에 實熱이 있으면 清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肺家가 虛熱한 경우에도 또한 먼저 清熱시켜주어야 肺虛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熱이 더욱 치성해지면서 肺金이 더욱 소모되어 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sup>14)</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瀉火하는 약물로 ‘粳米, 石膏, 寒水石, 知母, 訶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石膏, 知母, 粳米는 白虎湯이다. 비록 이것은 清胃시키는 대표적인 將帥이지만, 가을의 수렴하여 肅降시키는 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火炎이 왕성한 것을 소탕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5)</sup>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肺의 火를 瀉하는 主藥이 이것에 그치지 않으니, 예를 들어 黃芩, 黃連, 桑白皮, 地骨皮, 白前, 杏仁과 같은 종류가 모두 이것이다. 다만 열거하는 약물은 번거롭게 자질구레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潔古의 뜻은 임시로 몇 가지 약물을 기록함으로써 개략적인 것을 보여준 것이다.”<sup>16)</sup>고 하였다.

#### ④ 通滯

肺에 邪氣가 有餘하여 氣機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肺는 氣化의 출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外邪가 막게 되면 氣가 소통되지 않으면서 濕痰이 停蓄되어 합병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張潔古는 막힌 것을 소통시키는 약물

10)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144.

1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4.

1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4.

1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4.

1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5.

1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5.  
“膏知粳米, 白虎湯也. 雖是清胃之正將, 惟其稟秋收肅降之氣, 所以能掃蕩炎盛.”

1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6.

로 ‘枳殼, 薄荷, 乾生薑, 木香, 厚朴, 杏仁, 皂莢, 桔梗, 紫蘇梗’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氣滯의 병증은 마땅히 소통시켜야 하는데, 무릇 化痰滌飲하고 宣絡順氣시키는 약물이 모두 肺家の 氣滯를 소통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니, 또한 上文에 있는 ‘瀉子’와 ‘除濕’의 2가지 조항에 있는 많은 약물과 함께 서로 참고하여야 한다.”<sup>17)</sup>고 하였다.

## (2) 氣虛補之

肺의 正氣가 虛한 경우에는 補法을 사용해야 하는데, ‘補母, 潤燥, 斂肺’의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 ① 補母

肺의 母는 脾가 되기에 脾를 補하는 것이 肺氣를 도와주는 것으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虛한 것은 本氣가 쇠퇴한 것이니 補하는 방법은 마땅히 自身을 바로 補益하는 것이 단순 명쾌하다. …… 오직 肺는 金寒의 氣를 품수받았기에 그 體가 清肅하므로 肺氣가 虛한 것은 대부분 寒證을 겸한다. 무릇 肺家の 補藥은 또한 대부분 肺金의 肅降之令을 겸하기에 모두 清滋涼潤하여 肺家の ‘燥熱’을 치료할 수 있지만 ‘虛寒’을 치료할 수는 없다. 따라서 古人들이 補肺할 때에는 항상 補土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母를 복돋아서 그 子를 돕는 것이니, 經文에서 말한 ‘虛則補母’라는 학설은 오로지 肺臟을 위하여 이론을 세운 것이다.”<sup>18)</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補母하는 약물로 ‘甘草, 人參, 升麻, 黃芪, 山藥’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무릇 이러한 健脾養胃하는 약물은 대부분 충분히 肺虛를 補益할 수 있으니, 역시 潔古가 예를 든 人參, 黃芪, 甘草의 몇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sup>19)</sup>고 하였다.

### ② 潤燥

潤燥는 肺의 津液을 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앞에 나온 ‘補母’의 조항은

肺 중의 ‘氣’를 더하는 것이고, 지금 ‘潤燥’의 조항은 肺 중의 ‘陰’을 補하는 것이다. 金이 火의 형벌을 받으면 燥하게 되기에 ‘潤燥’는 ‘瀉火’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實火를 瀉할 때에는 ‘苦寒’한 약재를 사용하고 虛火를 瀉할 때에는 ‘甘寒’한 약재를 사용한다.”<sup>20)</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潤燥하는 약물로 ‘蛤蚧, 阿膠, 麥門冬, 貝母, 百合, 天花粉, 天門冬’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臟은 柔脆하기 때문에 燥하면 津液을 소모시킨다. 결과적으로 이곳의 燥火는 마땅히 ‘甘寒’으로 적서주어야 하는 것이니, 實火를 瀉할 때 ‘苦寒’한 약재를 사용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潔古가 ‘潤燥’의 조항을 虛證에 나열한 것은 辨析이 지극히 분명한 것이니, 이것은 ‘瀉火’와 ‘清金’의 2가지 조항과 分別하여 살펴야 한다.”<sup>21)</sup>고 하였다.

### ③ 斂肺

肺의 收斂하는 기운이 부족하여 생기는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氣가 虛緩하면 마땅히 固攝함으로써 潰散한 것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옛사람이 말한 短氣, 少氣는 모두 肺氣가 부족한 것인데, 또한 腎氣가 不攝함으로써 浮陽이 肺를 충격하여 咳嗽을 일으키기도 한다. …… ‘舌光無苔’한 자는 대부분 肺家の 痰飲이 停蓄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滋腎固澀함으로써 元氣를 攝納해야 한다.”<sup>22)</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斂肺하는 약물로 ‘烏梅, 粟殼, 五味子, 芍藥, 五倍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이러한 종류의 많은 약물은 대부분 酸澀하여 수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23)</sup>고 하였다.

## (3) 本熱清之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清熱하는 것은 ‘瀉火’와 ‘潤燥’를 벗어나지 않는데, 앞에서는 虛實로 구분한 것이고, 이곳에서는 標本의 寒熱로 구분한 것이니, 의미하는 것에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으므로 藥味에

1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6.  
1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7.  
1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757~758.

2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8.  
2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8.  
2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59.  
2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0.

있어서 역시 대부분 중복되어 출현한다.”<sup>24)</sup>고 하였다.

① 淸金

淸金은 肺의 熱을 淸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張潔古는 淸金하는 약물로 ‘黃芩, 知母, 麥門冬, 梔子, 沙參, 紫菀, 天門冬’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本病이란 곧 ‘臟病’을 말하는 것인데, 熱이 있으면 淸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곧 앞에서 말한 ‘瀉火’일 뿐이다. 다만 앞선 조항에서는 ‘實火’에 착상하였으니 단지 寒涼으로 泄降하는 약물만 있는 것이고, 이 조항에서는 ‘肺熱’에 착상한 것이니 ‘實熱’과 ‘虛熱’이 있는 까닭으로 ‘苦寒’한 약물과 ‘甘寒’한 약물을 섞어서 함께 나열한 것이다.”<sup>25)</sup>고 하였다.

(4) 本寒溫之

肺는 畏火하기에 熱을 싫어하지만, 『難經』에서 “形寒冷則傷肺.”<sup>26)</sup>라고 하였듯이 寒을 싫어하기도 한다.

① 溫肺

溫肺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脾胃를 溫하게 해야 하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臟은 柔脆하기에 外寒이 침범하면 金涼해지고, 飲冷하면 傷中하면서 金도 또한 涼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溫養함으로써 그 溫和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다만 溫肺시키는 전문적인 약물이 없으니, 肺氣가 虛寒한 자는 脾가 반드시 그 폐해를 이어받기 때문에 바로 肺와 더불어 脾는 子母相生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肺氣가 虛寒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脾胃를 溫하게 해야 한다.”<sup>27)</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溫肺하는 약물로 ‘丁香, 藿香, 款冬花, 檀香, 白豆蔻, 益智仁, 縮砂仁, 糯米, 百部’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는 이 조항에서 명칭은 ‘溫肺’라고 하고선 대부분 ‘脾胃의 약물’을 사용한 것에 肺金을 溫養하는 진정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庸俗한 의사들이 습관적으로 沙參, 麥門冬, 五味子를 사용하여 스스로 補肺라고 말하고선 뒷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본다면 得失이 어떠하겠는가?”<sup>28)</sup>라고 하였다.

(5) 標寒散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經의 標病은 寒邪가 본래 크게 모인 것이다. 그러나 東南의 지역은 風溫, 風熱의 기후가 많으면서 邪氣가 口鼻로 흡수되는 것이지만, 처음에 먼저 肺를 침범하지 않거나 皮毛로부터 먼저 그 病邪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sup>29)</sup>고 하면서 風寒의 邪氣가 침범했을 때에는 ‘標寒散之’의 방법으로 ‘解表’할 것을 주장하였고, 風溫이나 風熱의 邪氣가 침범했을 때에는 ‘標熱疏之’의 방법으로 ‘疏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解表

張潔古는 解表하는 약물로 ‘麻黃, 蔥白, 紫蘇’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이 3가지 약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깥으로 風寒을 皮毛로 發泄하거나, 안으로 肺家가 폐색한 것을 열어주는 것으로, 辛溫으로 升發하면서 氣味가 輕淸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病所에 도달할 수 없다.”<sup>30)</sup>고 하였다.

(6) 標熱疏之

張潔古의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에는 ‘標寒’에 대한 치료법만 제시하였지 ‘標熱’에 대한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張山雷가 ‘標熱’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風熱의 邪氣도 또한 皮毛로부터 침입하여 肺經이 邪氣를 받기 때문에 咳嗽, 鼻塞, 聲音不揚하게 된다. 다만 熱氣가 壅塞하여 喉中과 鼻中에 烘熱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니, 이때에는 辛涼한 약물로 疏泄시키면서 肺鬱을 宣發하고 皮毛를 開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用藥하는 것이 古人들이 사용한 麻黃, 桂枝, 羌活, 防風과는 크게 구별된다.”<sup>31)</sup>고 하면서 ‘桑葉, 牛蒡子, 白藜蘆’ 등의

2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0.  
2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0.  
26)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周珉出版社. 2002. p.706.  
2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1.

2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1.  
2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2.  
3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3.  
3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3.

약물로 치료한다고 설명하였다.

## 2. 大腸

張潔古는 大腸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腸實瀉之, 腸虛補之, 本熱寒之, 本寒溫之, 標熱散之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腸實瀉之

『素問·靈蘭秘典論』에는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sup>32)</sup>이라고 하였으니 邪氣가 有餘하면 막혀서 통하지 못하므로 腸實(便秘)하게 되는데, 張潔古는 腸實이 생기는 원인을 ‘熱’과 ‘氣’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張山雷는 腸實의 원인을 虛實로 나누어서 4가지로 더 세분하여 설명하였는데, “‘熱邪가 留滯’하거나 혹은 ‘氣結’하여 宣通시키지 못하면 傳導가 되지 않으면서 糟粕이 통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實證이니 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므로 下文에서 ‘熱’과 ‘氣’의 두 갈래로 구분한 것이다.”<sup>33)</sup>고 하였으며, 또한 “오직 ‘津液이 不足’하거나 혹은 ‘氣虛’하여 宣通되지 않아서 便秘가 되는 자도 있는데, 비록 이것도 實結한 것처럼 확실히 燥尿가 있지만, 또한 蕩滌하는 방법을 경솔히 사용할 수 없으니, 아래쪽 문장에 있는 ‘補虛’의 조항 중에서 찾아보아야 한다.”<sup>34)</sup>고 하였다.

#### ① 熱 (熱瀉熱)

張潔古는 大腸의 熱로 인한 便秘를 치료하는 약물로 ‘大黃, 芒硝, 芫花, 牽牛, 巴豆, 郁李仁, 石膏’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본 약물 중 ‘巴豆’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巴豆는 大熱大毒하기에 腸胃를 蕩滌하면서 脂膏까지 깎아내는 것이 매우 맹렬하며, 또한 大瀉한 이후에 留熱이 제거되지 않으면 해로움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寒實이 크게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볍게 시험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의도로 潔古는 ‘瀉熱’의 조항 중에 나열하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sup>35)</sup>고 하였다.

#### ② 氣 (氣理氣)

張潔古는 氣滯로 인한 변비를 치료하는 약물로 ‘枳殼, 木香, 橘皮, 檳榔’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大腸이 窒塞하여 소통되지 않는 까닭에는 비록 ‘熱結’과 ‘實結’의 구분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대부분 ‘氣滯’하여 宣通되지 못한 이후에 막히는 것이다. 다만 結滯한 것만 공격하고 理氣시키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욱 막히게 되면서 도리어 내려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泄熱破結할 때에는 모름지기 氣藥을 先導로 삼아서 서로 보좌하여 宣通시키면 氣機가 流通되면서 ‘實’과 ‘熱’이 모두 변화하는 것이다.”<sup>36)</sup>고 하였다.

### (2) 腸虛補之

張潔古는 腸虛(泄瀉)가 생기는 원인을 ‘氣, 燥, 濕, 陷, 脫’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六腑의 경우에 소통시키는 것으로써 補로 삼았기 때문에 大腸, 小腸, 膀胱에게는 補藥이 극히 드물다고 말하였다. 하물며 大腸은 傳導之官이기에 더욱 滓穢를 通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므로 補瀉시켜야 할 이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大便滯泄이 그치지 않는 것은 固滯시키는 권능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니 腸虛로 생긴 병이 아닌 것이 없다. 곧 ‘脫者固之, 陷者舉之, 苦以堅之, 澁以收之’의 방법들은 대부분 大腸을 補하는 올바른 법칙인 것이다.”<sup>37)</sup>고 하였다.

#### ① 氣

앞에서 나온 腸實瀉之에서 말한 ‘氣’는 氣滯로 인한 便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말하는 ‘氣’는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이곳에서 말하는 ‘氣’는 ‘風’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의심된다. 대개 風은 陽氣이기에 空竅로 잘 들어가는데, 風氣가 腸으로 들어가면 腸鳴·泄瀉의 모든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32)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71.

3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5.

3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5.

3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6.

3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7.

37) 趙雙湖.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767~768.

그러므로 약물로는 단지 皂莢 한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니, 그것이 腸으로 들어가서 搜風하기 때문이다.”<sup>38)</sup>고 하였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大腸의 氣虛는 下文에 나오는 ‘脫’과 ‘陷’의 두 가지가 아닌 것이 없다. 潔古는 이미 ‘脫’과 ‘陷’에 관한 전문적인 조항을 두었으니 ‘氣虛’라는 하나의 증상은 이미 獨立시킬 필요가 없다.”<sup>39)</sup>고 하였으며, 또 설명하기를 “이 조항은 ‘補氣’로써 주된 뜻을 삼았는데, 약물로는 皂莢을 예로 들어 滑泄峻厲하면서 蕩滌을 잘하는 것으로 삼았으니, 제목과의 거리가 萬리나 떨어진 것으로 백 번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아마 傳寫하면서 생긴 오류이다.”<sup>40)</sup>고 하였으며, 또한 趙雙湖의 주석을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趙氏는 비록 ‘搜風除濕’으로써 억지로 牽強附會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補氣’의 올바른 뜻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sup>41)</sup>고 하였다.

#### ② 燥 (燥潤燥)

張潔古는 大腸의 虛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潤燥’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大腸이 燥結하는 것에는 ‘實’과 ‘虛’가 있다. 實證은 火가 熾盛하여 津液이 건조한 것이고, 虛證은 津液이 부족하여 秘澁한 것이다. 그러므로 熱盛해서 생긴 燥證을 치료할 때에는 淸火하면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기에 비록 苦寒한 약물을 주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津枯하여 생긴 燥證을 치료할 때에는 養血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 근본을 배양할 수 없다.”<sup>42)</sup>고 하였다.

따라서 ‘腸實瀉之’의 치료법이 便秘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腸虛補之’의 치료법은 泄瀉를 위주로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燥’에 해당되는 내용은 大腸의 虛證으로 인한 便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張潔古는 大腸의 津液 부족으로 인한 변비를 潤燥시키는 약물로 ‘桃仁, 麻仁, 杏仁, 地黃, 乳香, 松

子, 當歸, 肉蓯蓉’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가 본 조항에서 선택한 약물이 많지는 않지만 導瘀生血하면서 滑利滋陰하는 것으로 모아두었다.”<sup>43)</sup>고 하였다.

#### ③ 濕 (燥濕)

張潔古는 大腸의 虛證으로 ‘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脾虛濕勝으로 인한 泄瀉의 증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脾土가 이미 기능이 곤란해지면 健運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淸濁이 섞이면서 大腸이 그것을 이어받으므로 大腸의 濕을 치료할 때에는 脾를 치료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sup>44)</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燥濕시키는 약물로 ‘白朮, 蒼朮, 半夏, 硫磺’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潔古의 選藥이 주도면밀하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오직 濕이 大腸으로 유입될 때에는 ‘濕熱’과 ‘寒濕’의 구별이 있으니 곧 치법에도 ‘淸理’와 ‘溫理’를 구분하여야 된다.”<sup>45)</sup>고 하였다.

#### ④ 陷 (陷升學)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淸氣在下, 則生飧泄.”<sup>46)</sup>이라고 하였는데, 胃중에 있는 淸陽한 氣가 大腸으로 陷下하여 泄瀉가 나타나면 升學해 주어야 한다.

張潔古는 陷下한 것을 升學시키는 약물로 ‘升麻, 葛根’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陷者舉之’라고 한 것은 그 氣를 升提하지 않으면 淸陽을 振動시킬 수 없는 것이니, 升麻, 葛根이 진실로 下陷한 것을 升學할 수 있는 神品인 것이다. 다만 氣가 지나치게 淸純하여 實力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脾土를 填補해 주는 主將을 얻지 못하면 坤道가 두텁지 못하여 사물을 실을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人參, 白朮, 薯蕷 등의 약물에 의지한 이후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47)</sup>고 하였다.

#### ⑤ 脫 (脫收斂)

張潔古는 滑脫하는 것을 收斂시키는 약물로 ‘龍

3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3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4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4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4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4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8.

4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0.

4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0.

46)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45.

4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1.

骨, 白堊, 訶子, 粟殼, 烏梅, 白礬, 赤石脂, 禹餘糧, 石榴皮'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大腸이 滯脫한 것은 대부분 虛가 심한 증상이기에 泄瀉가 그치지 않으면 久痢로 脫肛이 되기도 한다. 다만 그 標로 드러난 증상만 논할 것 같으면 마땅히 固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논할 것 같으면 脾胃의 臟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培土함으로써 升淸하고 溫納함으로써 補腎하는 것이 더욱 마땅히 급하게 힘써야 할 것이지 겨우 澀劑만 투여한다면 유해무익할 것이다.”<sup>48)</sup>고 하였고, 또는 실증으로 인한 탈항 증상도 있음을 설명하였으니, “脫肛의 증상에는 또한 濕熱이 膠結함으로써 大腸이 秘塞하여 努力하기 때문에 脫肛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도리어 實證이니 澀藥을 잘못 투여해서는 안 된다.”<sup>49)</sup>고 경고하였다.

### (3) 本熱寒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熱이 심한 경우에는 ‘瀉熱’하지 않으면 안 되고, 熱이 가벼운 경우에는 ‘淸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조항은 앞에서 언급한 ‘瀉熱’의 조항과 그 이치가 근본적으로 통한다. 다만 이전 조항은 ‘邪熱’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기에 ‘瀉火’함으로써 實證을 제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苦寒한 약물로 蕩滌시키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本病’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니 ‘淸火’함으로써 正氣를 길러주는 것이어서 다만 淸泄로써 退熱하면서 峻攻을 하지 않는 것이다.”<sup>50)</sup>고 하였다.

#### ① 淸熱

張潔古는 大腸의 熱을 淸熱시키는 약물로 ‘秦芄, 槐角, 地黃, 黃芩’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다만 熱이 있어서 淸熱하는 것이지 虛證은 아니다. …… 과연 虛熱에 속한다면 별도로 滋養補益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요, 본 조항 중에 있는 槐角과 黃芩은 虛證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다. …… 오직 大腸의 熱證에는 ‘濕熱’과 ‘燥熱’의 두 가지가 있는데, 濕과 熱이 아우르면 淸熱하는 것으로 다스려

야 하는데 심한 자는 모름지기 ‘苦燥’한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熱이 왕성하여 건조해지면 柔潤한 것으로 滋養해주어야 하니 滑潤하는 것으로는 오직 ‘甘寒’한 약물이 있다.”<sup>51)</sup>고 하였다.

### (4) 本寒溫之

이곳에서 大腸이 虛寒한 것을 補하는 약물 중에 ‘溫裏’하는 약물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 ① 溫裏

張潔古는 大腸의 寒을 溫裏시키는 약물로 ‘乾薑, 附子, 肉豆蔻’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大腸이 寒泄하는 원인으로는 ‘脾土의 卑監’으로 인한 것과 ‘腎水의 淸冷’으로 인한 것이 있다. 생각건대 大腸은 六腑로서 脾胃에서 흘러 내려보내는 물질을 이어받고 腎은 二陰의 開竅를 조절하는 것이니, 脾胃의 陽이 쇠약하면 大腸이 滯泄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腎寒 또한 반드시 泄瀉하는 것이다. 대개 脾胃는 병의 근본이고 大腸寒은 다만 그 標인 까닭으로 大腸을 溫養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약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직 溫脾, 溫腎하게 되면 大腸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곳에서 열거한 乾薑, 附子, 肉果가 모두 溫養脾胃하는 약물인 것이 이러한 취지이다.”<sup>52)</sup>고 하였다.

### (5) 標熱散之

大腸病에는 ‘標寒’과 관련된 치료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陽明은 肌肉을 주관하며 皮毛를 주관하지 않으니, 外感의 寒邪가 陽明으로 傳入하면 이미 鬱遏하여 熱로 변화한 까닭으로 陽明病에는 ‘標寒’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이다.”<sup>53)</sup>고 하였고, 또한 ‘標熱散之’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하기를 “옛날 사람들이 陽明經의 熱을 치료함에 있어 진실로 ‘發散’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니, 결국 傷寒病으로 陽明經에 傳入하여 熱로 변화하였다면 이미 發散해야 할 증상이 아니

4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1.

4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1.

5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2.

5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2.

5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3.

5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4.

며, 만약 雜病 중에서 陽明經에 邪熱이 있다면 단지 ‘清泄’시키는 약물로 宣化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하여 升散시키는 약물을 망령되어 투여하여 도리어 그 火焰을 부채질한단 말인가? 이것은 ‘標熱清之’라고 고치는 것이 陽明의 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sup>54)</sup>고 하였다.

#### ① 解肌

張潔古는 大腸의 標熱을 清泄시키는 약물을 설명하면서 ‘石膏, 白芷, 升麻, 葛根’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解肌’라는 방법은 결코 陽明病에 온당한 치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陽明이 肌肉을 주관한다고 한 것은 본래 足陽明胃經을 말한 것으로 脾胃가 中土이기 때문에 肌肉을 주관한다고 한 것이니 본래 手陽明經과는 다르다. 그러나 같은 陽明經이라서 氣化가 서로 비슷하고, …… 經脈이 지나가는 부위와 발현되는 증상에 있어서 足陽明胃經에 熱이 있는 경우와 크게 구별되지 않으니, 두 가지 陽明經의 氣熱이 上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며, 또한 經脈이 지나가는 부위에 있어서 두 가지 陽明經은 함께 頸項을 거쳐서 腦로 들어간다. 따라서 陽明主肌肉이라는 것도 또한 手足의 두 가지 經脈이 같은 하나의 氣임으로 潔古가 ‘解肌’라는 조항을 설립한 것이다. 다만 熱이 肌肉에 있으면 ‘清泄’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疏散’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sup>55)</sup>고 하였다.

### 3. 胃

張潔古는 胃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胃實瀉之, 胃虛補之, 本熱寒之, 標熱解之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胃實瀉之

張潔古는 胃實이 생기는 원인을 ‘濕熱’과 ‘飲食’의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張山雷는 ‘痰飲’을 하나 더 보충해야 된다고 하였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胃가 實해지는 까닭은 痰飲과 食積으로 濕이 氣의 순환을 막은 것이 병의 근

원이니 마땅히 분별해서 치료해야 한다. 溫和한 것이 痰飲을 변화시키고 疏通시킴으로써 消食하는데, 芳香性으로 振動시키는 것이 燥濕하는 것이고, 막힌 것을 開泄시키는 것이 곧 行氣시키는 것이다. 그 實해진 까닭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胃의 實을 瀉하는 방법은 본디 潔古가 예를 든 ‘濕熱’과 ‘飲食’의 두 가지 뿐만 아니라 氣滯하여 窒塞한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으니 芳香性 藥物로 宣化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治濕’과 ‘治食’ 조항 중에 마땅히 있는 것이라서 별도로 하나의 綱領을 세울 필요는 없으나, 停痰, 留飲의 증상은 비록 濕阻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開痰瀉飲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약물이 구별되기에 ‘痰飲’이라는 하나의 증상을 뒤에 보충하였다.”<sup>56)</sup>고 하였다.

#### ① 濕熱

張潔古는 濕熱로 생긴 中焦閉塞의 병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大黃, 芒硝’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류로 胃의 ‘濕熱’이라고 하고선 약물로는 大腸의 ‘燥熱’을 치료하는 大黃과 芒硝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芒硝, 大黃은 본래 大腸 중에 있는 燥結의 實證을 蕩滌하는 것이니 胃家の 濕熱을 瀉하는 약물이 아니다. …… 易老(張潔古)는 앞에서 芒硝, 大黃을 大腸 瀉熱 조항 중에 나열하였으니 이것이 正法인데, 이곳에서 또한 胃家の 약물이라고 한 것은 誤解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겨우 胃에만 濕熱이 있다면 木香, 藿香, 蔻仁, 縮砂의 종류로 快胃醒脾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濕門의 正將이다. 그리고 濕이 旺盛하여 蘊熱이 된 자는 또한 黃芩, 黃連과 같은 것이 있으니, 苦味는 燥濕하고 寒性은 清熱 시키기에 ‘濕熱’ 두 글자와 딱 맞게 상응한다. 반드시 燥熱로 實結하여 胃腸이 모두 막혀서 통하지 않은 연후에 비로소 急下의 치료를 해야 한다. 이것이 病機가 傳變하는 순서이니 반드시 선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sup>57)</sup>고 하였다.

#### ② 飲食

張潔古는 음식으로 생긴 積滯의 증상이 있을 때

5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4.

5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4.

5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8.

5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79.

치료하는 약물로 ‘巴豆, 神麩, 山楂, 阿魏, 礪砂, 鬱金, 三棱, 輕粉’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는 이것 중에서 ‘輕粉’에 대해서는 “輕粉 또한 寒痰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수는 독이 있어서 食積에 마땅하지 않다.”<sup>58)</sup>고 하였으며, 또한 음식으로 인한 胃病을 치료하는 약물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를 “胃家 實積하는 원인으로는 氣機가 不利해서 생기는 것과 脾弱하여 運化하지 못한 것이 있다. 氣滯인 경우에는 반드시 振動하여 鼓舞시킨 연후에 消化를 도울 수 있으니 香砂, 烏藥, 枳實, 青皮와 같은 것들이 막힌 것을 소통시켜 清陽을 펼칠 수 있다. 脾弱인 경우에는 반드시 溫養하여 추켜세운 연후에 崩陷된 것을 운화할 수 있으니, 二朮, 鷄內金, 麥芽, 穀芽와 같은 것들이 또한 脾元을 扶助하여 化育을 도울 수 있다.”<sup>59)</sup>고 하였다.

③ 痰飲

張山雷는 胃實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濕熱’과 ‘飲食’ 이외에 ‘痰飲’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痰飲이 停聚하는 것은 대부분 肺臟에 있다. 비록 胃腑의 主病은 아니지만 그 근원은 모두 胃氣가 펼쳐지지 못하면서 津液이 운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니, 遇寒하면 澄澈하여 飲이 되고 遇熱하면 煎熬하여 痰이 되어 매번 음식 섭취를 어렵게 하고 胸脘을 閉塞하게 만든다.”<sup>60)</sup>고 하였으며, 그것에 해당되는 약물로는 “二陳, 杏仁, 貝母와 같은 통속적인 것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가벼우면 瓜蒌, 薤白, 枳實, 竹茹와 같은 것들을 쓰고, 심하면 礪石, 南星, 葶藶, 甘遂, 大戟과 같은 것들을 마땅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니 증상에 따라 權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61)</sup>고 하였다.

(2) 胃虛補之

張潔古는 胃虛가 생기는 원인을 ‘濕熱’과 ‘寒濕’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장산되는 ‘胃陰’을 하나 더 보충해야 된다고 하였다.

먼저 본 분류에서 말한 ‘濕熱’은 이미 ‘胃實瀉之’에서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濕熱이 축적되어 생긴 實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胃氣가 허약하여 運化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濕熱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 또한 ‘胃陰’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를 “胃腑의 虛證은 모름지기 陰陽을 살펴서 치료해야 한다. 陽은 ‘清氣’이니 氣가 不振하면 敷布하지 못하고, 陰은 ‘津液’이니 津액이 왕성하지 못하면 수송되지 못한다.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게 하면서 鈎連하여 흥미를 잃게 만든다.”<sup>62)</sup>고 하였다.

① 濕熱

張潔古는 胃虛로 인한 濕熱을 치료하는 약물로 ‘蒼朮, 白朮, 半夏, 茯苓, 橘皮, 生薑’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胃에 濕熱이 있는 것은 邪氣가 實한 것이다. 濕은 마땅히 理氣하면서 熱은 마땅히 清熱해야 하는데, 治濕하고 治熱하는 것을 補虛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潔古의 본 뜻은 胃氣가 不振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二朮, 二陳에 해당되는 몇가지 약물을 기록한 것이다.”<sup>63)</sup>고 하였으니 陽虛가 심하지 않은 것은 二朮과 二陳湯 등으로 氣化를 도와주면 되지만, 陽虛가 심한 경우에는 溫補하는 약물이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② 寒濕

張潔古는 胃의 寒濕을 치료하는 약물로 ‘乾薑, 附子, 草果, 官桂, 丁香, 肉豆蔻, 人參, 黃芪’를 제시하였는데,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脾 중의 陽氣가 부족하면 胃 중의 津液이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補陽하는 것이 곧 健脾시키면서 또한 燥胃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寒濕이 제거되면 상부까지 津液을 수송하여 온 몸을 灌溉하는 것이다.”<sup>64)</sup>고 하였고, 張山雷가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土가 溫煦하지 못하면 草木이 자라지 않듯이, 胃가 虛寒하면 형세가 반드시 水濕이 넘쳐나게 된다.”<sup>65)</sup>고 하였다.

5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5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6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6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6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6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0.  
6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1.

③ 胃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胃陰이 虛한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火가 旺盛하여 燔灼함으로써 津液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고, 土가 薄弱하여 生化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火가 旺盛하여 津液을 손상하였으면 寒涼潤澤한 약물이 마땅한데, 예를 들어 鮮地、鮮斛、沙參、玄參、知母、石膏와 같은 것은 清胃하는 重劑가 되니 寒이 退熱하여 水勝火하는 것이고, 二冬、茅根、蔗漿、梨汁과 같은 것은 養胃의 上品이 되니 甘味가 津液을 생성하면서 潤勝燥하는 것이다.”<sup>66)</sup>고 하였다.

(3) 本熱寒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胃腑의 本이 熱한 것에는 實熱과 虛熱의 두 가지가 있는데, 實熱은 瀉하는 게 마땅하니 黃芩、黃連은 苦寒하여 그 銳氣를 억제할 수 있고, 虛熱은 清하는 게 마땅하니 石膏 같은 종류는 滋液潤燥할 수 있다.”<sup>67)</sup>고 하였는데, 위쪽 조항에서 이미 ‘胃陰’과 관련된 치료 원칙은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實熱’을 瀉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① 降火

張潔古는 胃의 熱을 強火시키는 약물로 ‘石膏、地黃、犀角、黃連’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의 本文을 관찰해보면 네 가지 약물만 선별하였는데, 石膏는 清胃하는 수령이 되고, 黃連은 苦燥하는 권위자가 되며, 地黃은 甘寒하면서 滋養하는 모범이 되고, 犀角은 神靈하면서 解毒하는 본보기가 된다. 약물이 寒한 것은 진실로 모두 같지만, 寒하게 만드는 것은 각각 마땅한 기능이 있으니 規範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준 것이다.”<sup>68)</sup>고 하였다.

(4) 標熱解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陽明經은 진실로 肌肉을 주관하지만, 本經의 熱證은 단지 ‘清泄’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疏解’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반드시 發散하려고 하면 熱이 더욱 치성해지면서 변화가 무궁할 것이다. 仲景은 ‘解肌’라는 두 글자를 桂枝湯을 위해 말한 것인데, 易老(潔古)가 어찌하여 오해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sup>69)</sup>고 하였다.

① 解肌

張潔古는 標熱을 解肌하는 약물이라고 ‘升麻、葛根、豆豉’를 제시하였지만,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升麻는 胃氣를 升提하는 主藥이니 반드시 脾胃의 清氣가 下陷한 자에게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 만약 陽明經의 熱에는 清降하는 것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어찌 熱病을 升提할 까닭이 있겠는가? 潔古가 熱症의 조항 중에 기록한 것은 智者의 실수이다. …… 葛根 역시 胃陽을 升擧하는 猛將으로 진실로 腠理를 열어 發汗시키지만, 表寒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약물이니 陽明病으로 發熱하는 자에게 汗解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豆豉는 中洲가 鬱塞된 것을 宣泄하는 것으로 中滿으로 胸悶한 것을 치료하는 良品이니, 역시 막힌 外邪를 發散하는 것이니 陽明經과 陽明腑를 和中解外하는 전문적인 약물이다.”<sup>70)</sup>고 하였다.

4. 脾

張潔古는 脾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土實瀉之, 土虛補之, 本濕除之, 標濕滲之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土實瀉之

張潔古는 土實을 瀉하는 치료법을 ‘瀉子’와 ‘吐’ ‘下’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五臟은 ‘藏精氣而不瀉’하기에 단지 不足한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찌 有餘할 까닭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五臟의 병증은 대부분 虛症이 많고 實症은 적은 것이다.”<sup>71)</sup>고 하였고, 따라서 ‘土實瀉之’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무릇 ‘實’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氣機가 窒滯된 것’을 말할 뿐이다. 脾는

6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1.  
6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782~783.  
6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3.  
6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3.

6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4.  
7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4.  
7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7.

또한 運行시켜서 氣化하는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運行이 튼튼하지 못하면 氣化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다. …… 이것은 마땅히 氣機의 중심축을 잘 조정하여 陽和를 펼침으로써 天行乾健의 항상됨을 회복시키는 것이니, ‘瀉’字의 본 뜻과는 꽤 많이 구별된다. 이것이 潔古가 瀉脾를 3法으로 분열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까닭이다.”<sup>72)</sup>고 하였다.

다만 이상의 내용은 張山雷가 『素問·通評虛實論』에 나오는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sup>73)</sup>라는 한의 학적인 虛實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설명임을 알 수 있으니, ‘瀉’자의 본래 의미가 脾의 正氣를 瀉하는 것이 아니고, 脾의 正氣 운행을 방해하는 邪氣를 瀉하는 것임을 안다면 오히려 張潔古의 분류가 옳다고 볼 수 있다.

① 瀉子

張潔古는 瀉肺하는 약물로 ‘訶子, 防風, 桑白皮, 葶藶’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脾氣가 막히면 매번 肺氣를 운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肺氣가 막히는 것을 開泄하면 中滿 역시 펼쳐지는 것이니, 母病이 子에 미친다는 것은 견해나 주장에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똑같은 하나의 氣가 感化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직 肺氣를 開通하는 것이 오로지 消耗하고 破泄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예를 들어 桑葉, 馬兜鈴, 杏仁, 貝母 등으로 肺金을 淸肅하여도 脾氣의 鬱結을 宣通할 수 있는 것이다.”<sup>74)</sup>고 하였다.

② 吐

張潔古는 吐法과 관련된 약물로 ‘豆豉, 梔子, 蘿蔔子, 常山, 瓜蒂, 鬱金, 齋汁(깃짚은 풀의 즙), 藜蘆, 苦參, 赤小豆, 鹽湯, 苦茶’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吐法은 오직 痰이 肺를 壅塞하거나 음식물이 胃를 壅塞하게 만든 자에게 마땅하니, 邪氣가 상부에 있는 것은 ‘因而越之’<sup>75)</sup>하는 것이 경로가 간단명료하면서 奏效하는 것으로, 消導하여 下行하는 것은 腸이 屈曲하여 遼遠한 것과 비교한다면 편

리한 방법이다. 이에 潔古는 이 방법으로 脾氣의 實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 비록 脾胃가 相磨하기에 본래 이것은 同類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胃라는 受盛之器의 음식물을 남김없이 쏟아버리기만 하고, 脾라는 運化의 근원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효과가 있겠는가? …… 요약하자면 ‘吐下’ 두 가지 방법은 腸胃의 實을 蕩滌하는 것으로 理脾시키는 것이 아니니, 潔古가 도리어 이곳에 나열한 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sup>76)</sup>고 하였다.

③ 下

張潔古는 下法과 관련된 약물로 ‘大黃, 芒硝, 青礞石, 大戟, 續隨子, 芫花, 甘遂’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吐下의 방법은 오직 腸胃에 실체로 壅滯한 것이 있을 때 마땅하다. …… 요약하자면 모두 通腑하는 방법인 것이고, 臟氣가 壅滯한 것을 吐下로 치료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에 潔古의 ‘吐’와 ‘下’ 두 가지 방법이 腸胃의 實證과 관계없고 脾土의 實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괴이함을 면할 수 없다. …… 내가 말하기를 脾實을 瀉할 수 있는 증상은 단지 氣機가 窒塞하여 健運을 담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증후가 있을 뿐이니, 이때에는 마땅히 振作시키고 鼓動시켜서 그 壅塞한 것을 소통시킴으로써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 潔古의 ‘吐’와 ‘下’ 두 조항은 결단코 瀉脾의 바른 뜻이 아니다.”<sup>77)</sup>고 하였다.

(2) 土虛補之

張潔古는 土虛를 補하는 치료법을 ‘補母’와 ‘氣’와 ‘血’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補母

張潔古가 補母의 치법으로 제시한 약물에는 ‘桂心, 茯苓’이 있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무릇 補心하는 약물은 더욱 補脾하는 약물과 관계가 매우 밀접한데, 心은 生血의 근원이 되고 脾는 統血을 주관하기에, 내 몸의 血液이 모두 脾가 精微를 수송하는 것에 의지하여 血液이 생성되는 것이다.”<sup>78)</sup>고 하

7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7.

73)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179.

7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7.

75)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59.

7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88.

7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789~790.

였고, 또 설명하기를 “무릇 酸棗仁、柏子仁、茯神、麥門冬 등은 心臟의 補血을 주관하는 것이면서 脾家의 養血을 돕는 良藥이 아닌 것이 없으니, 土虛補母한다거나 益火生土한다든 것과 같은 모호한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 …… 다만 潔古가 이 조항에서 ‘補心’을 제목으로 삼고 약물로는 ‘桂心、茯苓’의 두 가지를 사용한 것은 절대로 養心益血하는 약물이 없으니 그 뜻이 결코 명료하지 않다.”<sup>79)</sup>고 하였다.

### ② 氣

氣는 血을 통솔하기에 氣의 운행이 지체되면 運化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모든 질병이 따라오게 된다. 張潔古는 脾의 氣를 補하는 약물로 ‘人參, 黃芪, 升麻, 葛根, 甘草, 陳皮, 藿香, 藜蘆, 縮砂仁, 木香, 扁豆’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脾는 大氣가 周流하는 것을 天職으로 삼으므로 脾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理氣를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人參, 甘草는 滋膩한 성질이 있어서 補養에는 유여하지만 運化에는 부족하기에 본래 이곳에서 말하기에는 옳지 않다. 그리고 枳殼, 薏仁, 烏藥, 香附, 益智, 橘葉, 佛手, 佩蘭 등의 芳香性으로 宣散하여 醒胃快脾하는 약물은 어찌 하나라도 脾氣를 健運시키는 良藥이 아니겠는가? 비록 방향성 약물은 燥하여 泄氣하기에 辛烈한 것을 꺼리고 正氣를 耗散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나, 滋養하는 무리 중에 합하여 쓰면 變動이 많지 않으면서 六虛를 두루 주행하기에 저절로 氣機가 暢달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된다. 어찌 人參, 甘草, 玉竹, 扁豆 등의 약물이 守而不走하면서 陰柔하여 粘膩하기에 막혀서 靈活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서 낫지 않겠는가! 또한 白朮, 蒼朮은 氣가 味보다 뛰어나면서 脾의 運化를 돕기에 원래 氣藥이지만, 潔古는 下文에 있는 ‘補血’의 조항 중에 나열하고 있으면서 ‘補氣’의 약물로 삼지 않았으니, 또한 한 곳에 구속되어 변화하지 못함을 벗어날 수 없다.”<sup>80)</sup>고 하였다.

### ③ 血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血은 비록 陰에 속하지만,

그것을 化生시키면서 運動시키는 것은 陽和한 기운이다. 心脾肝腎의 4臟은 모두 陰血을 主體로 삼는데, 養血益陰하는 약물은 비록 柔潤한 성질로 滋填하면서 甘膩味厚한 약품이 마땅하지만, 대부분 膩滯하거나 守而不行하기에 옳지 않다. 무릇 血家의 補劑에 속하는 약물은 반드시 ‘溫和’한 작용을 구비하고 있어서 流動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sup>81)</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脾의 血을 補하는 약물로 ‘白朮, 蒼朮, 白芍藥, 膠飴, 大棗, 乾薑, 木瓜, 烏梅, 蜂蜜’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脾는 統血하는 직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무릇 補脾하는 약물은 補血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오직 脾는 後天之本이어서 萬物을 生長하게 하는 母에 해당되기에 溫潤한 성질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生生不息하는 功效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脾家의 補血藥으로 해야 하려는 것들은 반드시 溫和煦시키는 방법을 보존해야 하고 寒涼한 길로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阿膠, 熟地黃, 黃精, 當歸, 荔枝肉, 龍眼肉의 종류는 모두 脾家의 補血을 전문적으로 주관하기에 溫和潤澤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人參, 黃芪, 甘草 등도 모두 甘溫한 약품으로써 生津養血을 天職으로 삼기에 氣勝한 것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데, 부화뇌동하여 ‘益氣’하는 것이 있음을 칭송하면서 ‘補血’이 실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酸棗仁, 小麥, 枸杞子 등은 心腎의 益陰養血하는 약물이면서 또한 脾藏에 補血하는 主劑가 아닌 것이 없는데, 만약 반드시 膠飴, 大棗의 大甘한 것만이 비로서 補脾한다고 말한다면 脾家의 血藥은 또한 부족할 것이다.”<sup>82)</sup>고 하였다.

### (3) 本濕除之

張潔古는 本濕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燥中宮’과 ‘潔淨府’의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가 ‘燥濕’과 ‘利水’의 두 가지 방법으로 分立한 것은 겨우 實病에만 착상한 것이니, 脾虛로 濕阻한 것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潔古의 意中

7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0.

7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0.

8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2.

8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2.

8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3.

은 虛證의 종류는 上文에 있는 ‘補虛’의 조항 중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만약 ‘濕熱’과 ‘寒濕’이 서로 다른 것은 증상을 보면 징험할 수 있기 때문에 辨證을 하는 것이 더욱 쉬우니, 이곳에서 대략 몇가지 약물을 예로 들면 臨證할 때 스스로 선택함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sup>83)</sup>고 하였다.

① 燥中宮

張潔古는 燥濕하여 健運시키는 약물로 ‘白朮, 蒼朮, 橘皮, 半夏, 吳茱萸, 南星, 草豆蔻, 白芥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脾臟은 ‘喜燥而惡濕’하기에 濕이 脾陽을 막으면 清氣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精神이 萎頓하게 된다. 그러므로 健脾의 근본은 반드시 ‘除濕’을 급선무로 삼는다. 다만 脾臟의 濕病은 마땅히 兩層으로 나누어 지는데, 濕이 偏盛하여 脾가 不運하는 자는 舌苔가 반드시 濁膩하면서 實證이 되는데 치료는 오로지 그 濕을 다스리면 正氣가 저절로 충족될 것이니, 맑고 방향성으로 燥한 것 중에서 알맞은 것을 투여하면서 淡滲한 약물로 通利시키면 또한 津液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으니, 平胃散, 三妙丸, 四苓散의 종류가 이것이다. 또 脾가 먼저 弱해지면서 濕邪가 점점 막히는 자는 舌苔에 반드시 厚苔가 없어서 虛證으로 삼는데, 치료는 먼저 그 근본을 살피면 濕滯한 것이 저절로 변화할 것이니, 오직 和中溫養하는 것으로 陽和하는 것을 도와주고, 剛燥하면서 分清하는 것은 대부분 津液을 소모시킬 혐의가 있으니, 人參, 白朮, 薯蕷, 扁豆, 砂仁가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sup>84)</sup>고 하였다.

② 潔淨府

張潔古는 小便을 通利시킴으로써 除濕시키는 약물로 ‘木通, 赤茯苓, 豬苓, 藿香’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옛날부터 말하기를 治濕하는데 小便을 잘 나가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올바른 치료가 아니라고 하였다. 세속에서는 腫脹을 치료함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甘遂, 大戟, 商陸, 牽牛 등의 惡毒하면서 峻利한 약물로 大便을 설사시킴으로써 한 번에 通暢하는 것을 도모하였는데, 처음에는 應手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통하자마자 다시 막히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없어서 마침내 불치의 병이 된다. 그러므로 腫脹에 小便을 소통시키면 살고, 大便을 通利시키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sup>85)</sup>고 하였다.

(4) 標濕滲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濕이 皮膚에 있으면 水가 넘쳐나면서 浮腫이 되지만, 이것을 脾經絡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潔古가 이곳에서 나열한 것은 浮腫을 치료함에 있어서 發汗시키는 것은 확실히 病理 중의 一大法門이면서 臟腑 중에는 귀속할 만한 것이 없기에 잠시 ‘濕’이라는 한 글자를 통하여 관련된 五臟으로 함께 언급하면서 오히려 쉽게 눈에 띄게 한 것이니, 이것은 張潔古가 어쩔 수 없이 설정한 고충이다. …… 만약 臟腑의 예를 들어서 쉬이지 않게 분별한다면, 小便을 清利시키는 것은 膀胱에 귀속시켜야 하고, 皮毛을 開泄하는 것은 肺臟에 귀속시켜야 한다. …… 생각건대 肺가 막힌 것을 열어서 皮毛로 發泄한다는 것은, 장차 上竅를 열어서 清肅의 명령이 下行하게 되면 水道 또한 通利하면서 浮腫이 저절로 물러난다는 것이니, 이것은 病理의 확실한 근거이고 또한 治驗으로써 증빙할 수 있는 것이다.”<sup>86)</sup>고 하였다.

① 開鬼門

張潔古는 發汗을 통해서 濕을 제거시키는 약물로 ‘葛根, 蒼朮, 麻黃, 獨活’을 제시하였는데, ‘開鬼門’<sup>87)</sup>은 發汗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가 이 네 가지 약물을 선택한 것은 모두 肌腠을 開泄하는 작용이 있어서 皮毛에 氣를 도달하게 하면 陽氣를 통하게 하여 消腫시키는 것이다. 만약 經絡으로써 말할 것 같으면 모두 肺氣를 열어서 皮毛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sup>88)</sup>고 보았다.

5. 心

張潔古는 心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火實瀉之,

8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4.

8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4.

8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4.

8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5.

87)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96.

8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6.

神虛補之, 本熱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편에서 心과 包絡을 한꺼번에 논하였는데, “手少陰과 手厥陰의 두 경락은 발생하는 질병이 본래 한 가지이니, 사용하는 藥物이 이미 구별이 없어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기에 역지로 경계를 나눌 수 없다.”<sup>89)</sup>고 하였다.

### (1) 火實瀉之

張潔古는 火實을 瀉하는 치료 방법으로 ‘瀉子, 氣, 血, 鎮驚’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 ① 瀉子

張潔古는 脾胃의 熱을 瀉하는 藥物로 ‘黃連, 大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心은 陽剛함을 작용하는 힘으로 삼기 때문에 본래 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직 陽焰이 유여한 것은 實火가 太過한 것으로 도리어 津液을 모손시키기 때문에 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心熱할 경우 瀉脾하는 것은 비록 ‘實則瀉其子’의 恒法에 해당되는데, 心陽이 太亢하면 脾가 그 燥氣를 이어받아서 大氣 또한 壅塞하여 통하지 못하므로 脾의 熱을 瀉하는 것이 곧 心火를 清하는 것이니, 母子相生 하듯이 진실로 관계가 매우 밀접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sup>90)</sup>고 하였다.

#### ② 氣

이곳에서의 氣는 ‘氣分の 火’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張潔古는 氣分の 火를 瀉하는 것과 관련된 藥物로 ‘甘草, 人參, 赤茯苓, 木通, 黃柏’을 제시하였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는 ‘火實’ 조항 중에 ‘氣’와 ‘血’의 두 가지로 나누었으니, 본래 이것은 瀉心의 제목 중에 마땅히 있어야 할 뜻으로, 이미 ‘瀉氣分之火’와 ‘瀉血分之火’의 두 개의 강령으로 나눈 것이다. 氣清하면서 性涼한 것을 氣분에 예속시켰으니 連翹, 梔子, 竹茹, 竹葉의 종류는 모두 心經 氣分の 火를 瀉하는 藥物이고, 또한 質濁하면서 性寒한 것을 血분에 예속시켰으니 三黃, 生地, 玄參의 종류는 모두 心經 血分の 火를 瀉하는 藥物이다.

…… 어찌 標題는 ‘瀉在氣分’이라고 하고선 用藥은 甘草, 人參와 같은 大補하는 藥物으로 實火를 瀉해야 하는 증상에 사용한다는 것인가?”<sup>91)</sup>라고 하였다. 潔古가 赤茯苓 등의 세 가지 藥物을 함께 나열한 것을 보면 瀉火의 뜻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張山雷는 이 조항의 人參, 甘草의 두 가지 藥物은 반드시 傳寫의 잘못으로 의심하였다.

#### ③ 血

이곳에서의 血은 ‘血分の 火’를 가리키는 것으로, 張潔古는 血分の 火를 瀉하는 藥物로 ‘丹參, 牡丹皮, 生地黃, 玄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心臟은 본래 血을 생성하고 회전시키는 中樞이기 때문에 陽焰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血分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이것이 瀉心하는 모든 치법이 대부분 涼血하는 藥物인 까닭이다. 다만 血分の 熱을 清熱시키는 것이 丹參, 牡丹皮, 生地, 玄參의 네 가지 藥物만 있는 것이 아니라, 黃芩, 黃連, 梔子, 紫草, 地榆, 旱蓮, 紫參 등 藥品의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sup>92)</sup>고 하였다.

#### ④ 鎮驚

張潔古는 鎮驚시키는 藥物로 ‘朱砂, 牛黃, 紫石英’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心은 藏血하는 주체가 되기에 血液이 넘치면 神氣가 저절로 응장해질 것이니 어찌 驚怯에 이르겠는가? 經典에서 ‘心藏神’이라고 말한 것은 그 뜻이 이것인 것이니, 어찌 하나의 有形의 ‘神’이라고 부르는 사물이 있어서 나의 심장 속에 저장된다는 말이겠는가? 오직 心液이 충분하지 못하면 正氣가 怯餒하면서 神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驚悸, 恐慌하면서 心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驚이 心病이 되는 것을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虛症이니 養液寧神하여 그 근본을 복돋워야지, 金石類와 같이 重墜하는 藥物로 강하게 진압하여 奏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다면 落阱下石하는 것과 같아서 어찌 큰 피해가 없으리오? 오직 陽焰이 크게 왕성하여 痰熱이 上蒸함으로써 心君을 뒤흔들어서 안정되지 못하는 자에게 鎮攝滌痰하면서 濁垢를 배

8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97.

9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2.

9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2.

9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3.

설하는 것이 心神이 이에 안정되는 것이다. 潔古가 ‘鎮驚’이라는 하나의 조항을 ‘火實瀉之’의 종류로 나열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sup>93)</sup>고 하였다.

### (2) 神虛補之

張潔古는 神虛를 補하는 치료 방법으로 ‘補母, 氣, 血’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 ① 補母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 ‘虛則補其母’ 한다는 것은 본래 五臟의 虛를 補하는 통상적인 예인데, 오직 木이 火의 母가 되기에 心虛에 補肝한다는 것은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대개 肝은 剛臟이 되기에 항상 그것이 橫逆하는 우환이 있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四臟에는 대부분 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독 肝의 경우에는 대부분 清泄抑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補益하는 약물이 절대적으로 적다. …… 즉 肝虛한 자는 마땅히 肝陰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역시 滋水養血하는 것이 肝木을 潛藏하여 거두워들일 수 있다는 것이 불변의 이치이다. ‘滋水’는 補腎함으로써 肝의 母를 더해주는 것이고, ‘養血’은 補心脾함으로써 肝의 陽氣를 涵養하는 것이니, 모두 補肝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가 아니다.”<sup>94)</sup>고 하였다.

張潔古는 補母하는 방법으로 ‘細辛, 烏梅, 酸棗仁, 生薑, 陳皮’의 약물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陰을 補함으로써 心血을 滋養하는 것이 ‘虛則補其母’의 바른 뜻이므로 마땅히 酸甘滋液하는 약물을 선택해야 하니, 白芍藥, 山茱萸肉 등의 종류가 이것이다. 潔古는 烏梅, 酸棗仁을 기록하여 正例로 삼으면서 어찌하여 細辛, 生薑, 陳皮의 泄散이 지나치고, 또한 正氣를 모손하는 것을 섞어 놓고선 이것을 일러 補藥이라고 하였단 말인가?”<sup>95)</sup>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첫머리에 細辛을 수록하였는데, 辛溫한 약물이 達木하는 것을 ‘補肝’이라고 말한다면 확실히 肝의 陽을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나, 剛燥하면서 辛升하는 약물로 肝虛를 치료하면 제멋대로 난폭함을 도와줄 것이고, 心虛를 치료하면 猛

烈하여 耗氣할 것이니, 결코 본 조항의 ‘神虛’ 두 글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生薑, 陳皮로 미루어보면 또한 어찌 神虛의 질병에 마땅한 것이겠는가? 이것은 거리가 멀면서 적절하지 않고 실용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니 ‘補母’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安神養血’을 補心の 細目으로 삼는 것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며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96)</sup>고 하였다.

#### ② 氣

張潔古는 心の 淸陽之氣를 補하는 약물로 ‘桂心, 澤瀉, 白茯苓, 茯神, 遠志, 石菖蒲’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 ‘補心’하는 것은 진실로 淸陽을 振動함으로써 心氣를 扶益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潔古가 桂心을 기록함으로써 補氣한 것이 그 뜻이다. 그러나 또한 茯苓, 澤瀉의 淡滲한 약물을 기록함으로써 利水하여 津液을 손상시키는 것은 補氣의 바른 뜻과 지나치게 먼 것이 아니겠는가?”<sup>97)</sup>라고 하였고, 또 설명하기를 “心은 血을 위주로 삼지만 大氣의 流行에 의지하여 운용되면서 鼓蕩周旋하여 아무리 미세한 곳이라도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기에 心家の 전체적인 작용이 다 갖추어지게 된다. 이것이 心血을 補함에 있어서 마땅히 心家の 氣도 겸하여 도와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補氣를 잘하는 것은 반드시 攝納鎮靜하면서 모산시키지 않는 것을 최상으로 삼기에 益智仁, 山茱萸肉, 白芍藥, 酸棗仁, 貝齒, 龍齒와 같은 것들이 心神을 단단히 보호하면서 心氣를 保守하기에 거의 補家の 正將이 되고, 또한 柏子仁, 淮麥과 같은 것들도 역시 養心凝神하기에 氣血을 함께 조절하는 우량품이 된다. 그러나 潔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菖蒲, 遠志, 桂心の 辛散하는 功力을 갖춘 것만 있으니, 이것을 빌려서 心陽을 發越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궁구해보면 ‘補氣’의 두 글자의 올바른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sup>98)</sup>고 하였다.

#### ③ 血

張潔古는 補心血하는 약물로 ‘當歸, 熟地黃, 乳香,

9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4.

9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5.

9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6.

9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5.

9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6.

9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7.

沒藥'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무릇 味厚하여 養陰하면서 生津滋液하는 약물은 補血하는 작용이 없는 것이 없으며, 또한 補心하는 주체가 아닌 것이 없으니, 약물이 매우 많아서 모두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潔古가 단지 當歸、熟地黃의 두 가지만 수록한 것은 매우 엄격한 것이다! 대개 當歸는 그 流走함을 취한 것이고, 熟地黃은 그 守株함을 취한 것이니, 하나는 滋養益血하는 體로 삼고, 하나는 流動助血하는 用으로 삼아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그 나머지를 예로 든 것이니, 오직 이 두 가지만 補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乳香、沒藥의 두 가지는 芳香性的의 氣를 가지고 있으면서 質은 粘滯하기에 진실로 氣藥 중의 血藥이다. 外科의 金瘡에 사용하면 지극히 쉽게 肌肉을 자라게 만드는데, 이것이 補血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아니겠는가?”<sup>99)</sup>라고 하였다.

### (3) 本熱寒之

張潔古는 本熱을 寒하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瀉火’와 ‘涼血’의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心家가 本熱하다는 것은 心火가 太過하여 병이 된 것이니, 上文에 나온 ‘火實瀉之’라는 하나의 조항이 모두 清心涼血하는 약물로 범칙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이 조항은 반복되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비록 潔古가 기록한 약물이 上文의 조항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病理와 藥理에 있어서 진실로 차이점이 없다.”<sup>100)</sup>고 하였다.

#### ① 瀉火

張潔古는 瀉火에 해당하는 약물로 ‘黃芩、竹葉、麥門冬、芒硝、炒鹽’을 제시하였는데,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虛할 때에는 甘寒한 약물을 사용하고, 實할 때에는 苦寒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니, 瀉火하는 방법으로 이 두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sup>101)</sup>고 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이 조항에서는 다만 ‘瀉火’만을 말하였는데, 趙氏의 주석에서는 虛實 두 가지를 겸하여 말한 것 같다. 그러나 正氣가 왕성하

면서 火가 熾盛하는 것은 ‘苦寒’한 약물로 직접적으로 꺾어주는 것이 옳고, 熱이 이미 왕성하여 津液이 손상된 것은 ‘甘寒’한 약물을 사용하여 津液을 생성시키는 것이 옳으니, 그렇다면 여전히 寒한 약물을 사용한 것이기에 虛火의 證治가 아니다. 대개 ‘有火可瀉’라는 것은 그 증상이 아직 ‘實熱’한 편에만 있는 것이니, ‘苦寒’이나 ‘甘寒’한 약물은 이미 寒으로써 熱을 치료하는 것이기에 결단코 虛證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입법한 것이 아니다. 만약 陰虛火動인 경우에는 滋養調陰해야 하고 寒藥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實火可瀉, 虛火可補’를 말한 깊은 뜻일 것이다.”<sup>102)</sup>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潔古는 이 조항에서 瀉火를 목표로 하면서 약물로는 黃芩、芒硝를 기록한 것은 옳지만, 또한 麥門冬을 기록한 것은 이미 瀉字의 참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趙雙湖는 ‘虛用甘寒’이라고 설명하면서 潔古가 麥門冬을 사용한 의도를 보호해주려고 하였는데, 어찌 粘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甘寒한 것에 속한다 하더라도 瀉藥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단 말인가!”<sup>103)</sup>라고 하였다.

#### ② 涼血

張潔古는 涼血하는 약물로 ‘生地黃、梔子、天竺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上文에 있는 ‘火實瀉之’의 조항 중에 이미 있는 것이니, 이것 역시 중복되었다.”<sup>104)</sup>고 하였다.

### (4) 標熱發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經絡에 熱이 있으면 마땅히 清熱시키는 것이 陰平陽秘의 바른 뜻에 맞다. 만약 內部에 熱이 있는데 다시 發散시키면 火焰이 더욱 펼쳐지면서 형세가 마치 들관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 어떤 의도로 潔古가 여기에서 도리어 ‘標熱散之’라는 用藥 범식을 세운 것인지 괴이하지 아니한가? …… 心經에 熱이 있는 것을 궁구해보면 실제로 內部에서 생성된 火이지 外感이 아니며, 또한 表寒도 없으므로 ‘散之’라는

9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8.

10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8.

10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8.

10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8.

10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8.

10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09.

두 글자는 해석할 수가 없다.”<sup>105)</sup>고 하였으며,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心經의 熱病은 마땅히 清理를 위주로 해야 하는데, 梔子、連翹、竹茹、竹葉과 같은 약물이 心臟의 火를 清熱하면서 또한 經絡에 있는 熱도 泄化할 수 있다. 上文에 나오는 ‘瀉火’의 두 가지 조항에서 이미 남김없이 개괄하였으니 여기에서 다시 標本으로 조항을 나누는 것은 중복에 해당된다. 대개 心家の 臟과 經絡에 있는 질병은 본래 한계를 나누기 어렵다.”<sup>106)</sup>고 하였다.

① 散火

張潔古는 標熱을 升散시키는 약물이라고 하면서 ‘甘草, 獨活, 麻黃, 柴胡, 龍腦’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心經에 熱이 있을 때 다시 發散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潔古의 오해이다.”<sup>107)</sup>고 하였다.

6. 小腸

張潔古는 小腸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熱瀉之, 虛寒補之, 本寒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1) 實熱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小腸의 體用은 본래 胃腑와 서로 유사하기에 瀉熱하는 방법도 또한 胃腑의 用藥하는 방법과 같다. 潔古는 小便이 小腸의 泌別 清濁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誤認함으로써 下文에서 ‘氣’와 ‘血’로 조항을 나누어서 滲泄利水하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 비록 小澹가 腎臟에서 來源하여 나온다는 것을 漢魏 이후의 醫家들이 알 수 있는 바는 아니었으나, 의심스러운 것을 당분간 보류하여 남겨두지 못하고, 억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기에 마침내 鄙陋한 소견을 보인 것이다.”<sup>108)</sup>고 하였다.

10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09~810.  
10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0.  
10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0.  
10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13~814.

① 氣

張潔古는 氣分에 熱이 있어서 泌別清濁이 안되는 병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木通, 豬苓, 滑石, 瞿麥, 澤瀉, 燈草’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小腸 氣分에 熱이 있으면 ‘清涼泄火’해야 하니, 瀉心清胃의 예와 같은 것들이 이것의 正治가 된다. 潔古는 겨우 ‘利水’시키는 한 집단만 기록하면서 마침내 誤認하였으며, 雙湖는 다시 ‘行水’가 곧 ‘導熱’이라고 注釋함으로써 마침내 小腸과 膀胱을 동일한 작용으로 본 것이니 小腸의 真相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 濕熱이 막혀서 小便이 不利한 질병에는 오직 膀胱을 책망해야 하니, 潔古는 膀胱의 ‘泄火’ 조항 중에 滑石、豬苓의 두 가지 약물을 기록함으로써 正式으로 삼은 것으로, 小腸의 이 조항은 진실로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腸胃에 熱이 있으면 小澹를 滲利시키는 약물을 加味해서는 안 되는데, 澹數하면 津液이 더욱 손상되면서 大腸을 燥結하게 만들어서 陽明 實結의 大承氣湯證을 양성하게 된다. 『傷寒論』에서 ‘澹數則便難’<sup>109)</sup>한다고 명백하게 말하였으니, 熱이 腸에 있는데 망령되게 利水導熱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小便 보는 것을 膀胱과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옳지만 胃腸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110)</sup>고 하였다.

② 血

張潔古는 小腸 血分에 熱이 있을 때 치료하는 약물로 ‘地黃, 蒲黃, 赤茯苓, 梔子, 牡丹皮’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熱이 小腸 血分으로 들어가면 津液이 乾燥해지면서 轉輸하는 것이 遲滯되기에 胃家實熱의 예에서와 같이 ‘苦泄宣通’해야 하니 調胃承氣湯 등의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潔古는 地黃、梔子、牡丹皮、赤茯苓을 기록하여 ‘清泄涼血’함으로써 心과 小腸 血分の 熱을 인도하여 下行시키는 것으로 삼았으니 이치가 모자라지는 않지만, 오직 약간의 破結攻實하는 약물이 小腸 血分の 實熱이라는 병증에 적합하지 않다. 대개 潔古의 意中은 단지 小腸의 기능이 膀胱과 서로 가까움만을 말한 것

109) 陳亦人 主編. 傷寒論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776.  
11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4.

으로, 마침내 小腸에는 또한 食物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몰랐던 것이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111)</sup>고 하였다.

## (2) 虛寒補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오직 그 腑氣가 虛寒하면 運化의 專職을 잃어버리기에 補하는 것이 마땅한데, 潔古가 白朮, 扁豆, 砂仁, 神麩 등의 藥物을 기록해 둔 것을 보면 바로 補胃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니, 이것으로 小腸의 참된 작용을 알 수 있다.”<sup>112)</sup>고 하였다.

### ① 氣

張山雷는 小腸의 氣를 補하는 藥物로 ‘白朮, 棟實(川棟子), 茴香, 砂仁, 神麩, 扁豆’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胃와 小腸은 기능이 본래 크게 구별되지 않기에 小腸을 補하는 것은 補胃하는 藥物과 동일한 機杼이다. …… 小腸은 運化함으로써 胃의 食物이 下流하는 것을 도와서 渣滓를 소통시키고 傳導하여 大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消化를 도우면서 利氣行滯하는 藥物은 모두 小腸 補氣의 藥物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靑皮, 烏藥, 木香, 香附, 智仁 등의 藥物이 모두 이것이니, 반드시 白朮, 扁豆와 같은 것만 비로소 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113)</sup>고 하였다.

### ② 血

張山雷는 活血하여 補血하는 藥物로 ‘桂心, 延胡索(玄胡索)’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延胡索에 대해서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延胡索은 活血하면서 氣分이 막힌 것을 運行시켜 氣血을 소통하고 기전을 잘 流動시키기에 性情이 香附子와 서로 가깝다. 세속에서는 겨우 破血시키는 것만 알아서 두려워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응용한다면 神通한 묘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能走不能守’하기에 潔古가 虛寒을 補하는 데 이 藥物을 배치한 것은 꼭 맞지는 않다.”<sup>114)</sup>고 하였다.

## (3) 本熱寒之

### ① 降火

趙雙湖가 설명하기를 “小腸과 心은 表裏가 되는데, 心火가 太旺하면 왕왕 아래쪽으로 小腸에 전해 주는 것이니, 降心火하는 것은 小腸의 上流를 清熱시키는 것이다.”<sup>115)</sup>고 하였으며, 張山雷는 降心火 시킴으로써 清小腸 시키는 藥物로 ‘黃柏, 黃芩, 黃連, 連翹, 梔子’를 제시하였으니, 壯火가 太盛하면 鬱熱이 運行되지 않기에 清而導之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張山雷가 말하기를 “小腸의 火를 清熱시키는 것은 用藥하는 것이 반드시 清胃하는 것과 서로 비슷하다. 潔古는 芩, 連, 梔, 柏의 藥物을 기록하여 本腑의 熱을 清熱시켰으니 뜻이 매우 합당하다.”<sup>116)</sup>고 하였다.

## (4) 標熱散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潔古는 이 조항에서 비록 ‘標熱’만 말했지만, 下文에 기록된 藥物인 藁本, 羌活, 防風, 蔓荊子에는 모두 溫하여 升氣하는 象을 함유하고 있어서 ‘風寒을 發散’한다는 것에 매우 일치한다. 만약 風熱이 上乘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荊芥, 薄荷, 蒺藜, 桑葉 등의 辛涼한 藥物이 마땅하니, 이것은 유사하다라고 모호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宋·金元·明代에 疏散시키는 방법은 모두 辛溫한 藥物을 통용하였기에 지금 사람들처럼 정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潔古가 꺼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潔古의 허물로 삼아서도 안 된다.”<sup>117)</sup>고 하였다.

### ① 解肌

張山雷는 解肌시키는 藥物로 ‘藁本, 羌活, 防風, 蔓荊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仲景이 말한 ‘解肌’는 肌表를 가볍게 소통시킨다는 뜻으로, 다만 發汗의 ‘發’자 와는 輕重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肌’도 곧 表를 말하는 것이니 兩層에 深淺의 구분은 없다.”<sup>118)</sup>고 하였다.

11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4.

11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5.

11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5.

11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6.

11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6.

11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6.

11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7.

11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7.

## 7. 膀胱

張潔古는 膀胱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熱瀉之, 下虛補之, 本熱利之, 標寒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 (1) 實熱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膀胱은 小便을 導泄하는 것을 專職으로 삼는다. 實熱이 壅塞하면 小水가 不通하기에 滑泄通利하려면 實熱을 瀉하는 것이 명분이 바로고 말이 사리에 맞아서 본래 지극히 단순 명쾌하다.”<sup>119)</sup>라고 하였다.

#### ① 泄火

張潔古는 利水하여 火를 瀉하는 약물로 ‘滑石, 猪苓, 澤瀉, 茯苓’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무릇 膀胱에 熱結하여 水道가 澁滯한 자에게는 이러한 淡滲清熱하는 약물이 膀胱에 瀉火行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潔古가 이곳에서 단지 滑石, 猪苓의 몇가지만 수록하고 나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어찌 瀉熱하는 것이 단지 利水하는 것에만 있으며, 利水하는 약물에 별도의 다른 약물이 없어서이겠는가? 知母, 黃柏, 茯苓, 地骨皮 등의 약물이 膀胱의 火를 泄할 수 없단 말인가? 대개 下文에 보면 ‘本熱利之’라는 하나의 조항을 두어 마침내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에 다른 약물을 수록하지 않은 것이니, 생각해보면 ‘實熱瀉之’는 ‘本熱利之’와 어떤 구별이 있겠는가?”<sup>120)</sup>라고 하였다.

### (2) 下虛補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膀胱은 藏尿하면서 泄尿하기에 熱이 심하여 陰液을 손상시키면 下焦의 津液이 마르면서 小便秘澁하고, 虛寒으로 固攝하지 못하면 開闔의 자물쇠가 부서지면서 빗장이 열리게 된다. 潔古가 寒熱의 두 가지로 나누어 膀胱을 補한 것은 그 이치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것이다.”<sup>121)</sup>고 하였다.

#### ① 熱

張潔古는 膀胱의 熱을 치료하는 약물로 ‘知母, 黃柏’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知母, 黃柏은 下焦의 火를 清하기에 膀胱의 實熱을 瀉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매번 滋陰하는 약물이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은 邪熱을 식힘으로써 眞陰이 안정된 것으로, 熱이 제거되면서 陰液이 저절로 滋長된다는 뜻이 있는 것을 마침내 滋補하는 약물로 오인하였으니 크게 語弊가 있는 것이다. 古今の 陰虛勞怯의 증상에 이러한 두 글자(滋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명을 잃었겠는가! 의도치 않게 潔古처럼 高明한 醫家도 또한 ‘補虛’의 조항 중에 나열하였는데, 진실로 瀉하는 것으로써 補를 대신하였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오직 이 두 가지 약물만 나열하여 補虛하는 것으로 삼았으니 또한 얼마나 괴이한가!”<sup>122)</sup>라고 하였다.

#### ② 寒

張潔古는 膀胱의 寒을 치료하는 약물로 ‘桔梗, 升麻, 益智仁, 烏藥, 山茱萸’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대개 膀胱은 陽和한 기운이 펼쳐져야 小便이 비로소 조절되는데, 實熱이 있으면 津液이 마르면서 소변이 적게 나오기에 清利시켜야 하고, 虛寒하면 소변이 막아지면서 量이 많아지기에 溫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서 陽氣가 이미 쇠약해졌거나 小兒가 아직 稚陽이 자라지 않은 자는 밤에 반드시 小便을 많이 보거나 심하면 遺尿하게 되는데, 膀胱을 攝納하기 위하여 반드시 溫養收澁하는 약물을 사용해야 하니, 韭子, 覆盆子와 같은 종류가 모두 膀胱의 虛寒을 치료하는 약물이고, 山茱萸肉, 益智仁과 같이 그 陰陽을 단단히 보호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虛熱이 요란시켜도 關門의 緩急이 조절 안 되어 不約하거나 遺尿하는 자가 있으니, 마땅히 분별해서 치료할 것이 지 잘못 시행하면 안 된다.”<sup>123)</sup>고 하였다.

### (3) 本熱利之

11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0.

12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1.

12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1.

12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1.

12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2.

① 降火

張潔古는 本熱을 降火시키는 약물로 ‘地黃, 梔子, 茵陳, 黃柏, 牡丹皮, 地骨皮’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앞에 나온 ‘利水泄火’가 진실로 瀉實에 해당된다면, 이 조항의 ‘本熱’ 또한 어찌 實熱이 아니겠는가? 潔古는 근본적으로 중복의 폐단을 벗어날 수 없으며, 梔子, 柏皮, 丹皮, 地骨皮도 어찌 하나라도 瀉實하는 약물이 아니겠는가?”<sup>124)</sup>라고 하였다.

다만 癰閉의 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무조건 膀胱의 實熱로만 생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무릇 膀胱이 不利하여 癰閉가 된 병증에 다만 清熱通利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肺氣를 열어 전개함으로써 氣化의 上源을 소통시켜주면 上竅가 통하면서 下竅가 저절로 泄下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어 한 항아리에 있는 물이 겨우 아래쪽에 하나의 구멍만 있으면, 비록 항아리를 기울인다 해도 물방울이 잘 흐르지 않는데, 하나의 上竅를 열어주면 下竅가 마침내 잘 흐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일러 ‘下病求之于上’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杏仁, 貝母, 葶藶子, 紫菀, 百部, 馬兜鈴, 桑葉 등의 開肺하는 것을 虛實을 헤아려 한두 가지 선택하여 導水하는 약물 중에 합하면 水源이 열리면서 빠른 효과를 보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潔古가 기록한 약물에는 아직 이것에 미치지 못하였다.”<sup>125)</sup>고 하였다.

(4) 標寒發之

① 發表

張潔古는 標寒을 發散하는 약물로 ‘麻黃, 桂枝, 羌活, 防己, 黃芪, 木賊, 蒼朮’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단지 桂枝, 麻黃은 太陽表證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물로 氣味가 가벼우면서 靈活하기 때문에 發汗시키면서도 燥烈한 폐단이 없기에 옛날부터 이어져 오면서 불멸의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것인데, 宋·金元代 이후로 醫學이 날로 거칠어지면

서 仲景의 서적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麻黃湯과 桂枝湯을 猛劑로 의심하게 되어 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羌活, 蒼朮 등의 약물로 방제를 만들어 麻黃과 桂枝를 대신하여 四時에 發表하는 통용방으로 말하면서 仲景의 처방과 비교해서 가볍다고 하였는데, 燥烈하면서 標悍한 것이 실제로는 지나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또한 羌活, 蒼朮 등으로 發汗하는 것은 ‘寒濕’을 發汗시키는 것이기에 이미 ‘風寒’에 가볍게 감촉된 것에 통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風溫’이나 ‘暑熱’로 질병이 된 것들은 모두 發汗을 하는 것은 만만부당한 것이니, 비록 身熱, 頭痛이 있고 또한 畏寒하여 확실히 太陽表病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러한 通套方으로써 망령되어 시험해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四時에 發表하는 通用劑로 인식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겠는가? 潔古는 이 조항에서 羌活, 蒼朮으로써 太陽病의 發表하는 무리 중에 나열한 것은 仲師의 本旨를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黃芪 또한 發汗시키는 약물로 인식할 수 없다”<sup>126)</sup>고 하였다.

8. 腎

張潔古는 腎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水強瀉之, 水弱補之, 本熱攻之, 本寒溫之, 標寒解之, 標熱涼之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1) 水強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腎은 眞陰으로써 오직 그 부족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결단코 그 유여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오직 腎만은 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비록 寒水가 순조롭지 않아서 陰霾가 넘쳐나면 水가 有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陰寒이 太過한 것이니 단지 溫養하고 溫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또한 ‘瀉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潔古의 意中은 모든 臟腑에 이미 각각 ‘瀉之’라는 하나의 조항이 있으니 腎臟에서만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腎水可瀉’라는 말을 옛날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역지로

12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3.

12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3.

12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24.

‘瀉子’와 ‘瀉腑’로 나누어서 두 가지 조항으로 분열한 것은 고식적으로 그 제목을 나눈 것이지 응당 있어야 할 의미는 아니다.”<sup>127)</sup>고 하였다.

① 瀉子

張潔古는 瀉子하는 약물로 ‘牽牛, 大戟’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四臟에는 모두 實證이 있으니 ‘實則瀉子’의 방법이 있지만, 腎陰에는 본래 實證이 없으니 ‘瀉子’는 이미 적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五行으로 말한다면 하더라도, 腎水の 子는 肝木이고, 肝에 太過한 氣化가 있다면 마땅히 瀉해야 하는데, 肝木의 氣火를 瀉하는 것이 ‘水強’ 두 글자와 어떤 부분이 딱 들어맞는단 말인가? 이것이 ‘腎強瀉子’의 네 글자가 특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sup>128)</sup>고 하였다.

② 瀉腑

張潔古는 瀉腑하는 약물로 ‘澤瀉, 豬苓, 車前子, 防己, 茯苓’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膀胱에는 濕熱이 阻滯되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濕熱을 瀉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腑와 관련된 질병으로 오히려 경미한 질병이니 腎과는 무관한 것이다. 만약 腎家に 寒水가 泛溢한다면 반드시 膀胱을 通泄한다고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腎臟의 질병에 ‘瀉腑’라는 방법의 학설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한 까닭이다. 潔古가 이러한 조항을 세운 것은 단지 膀胱의 濕熱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법한 것이지 腎臟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sup>129)</sup>고 하였다.

(2) 水弱補之

張潔古는 水弱을 補하는 치료 방법으로 ‘補母, 氣, 血’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補母

張潔古는 補母하는 약물로 ‘人參, 山藥’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肺金의 淸肅하는 명령이 下行하면 腎氣가 그 거처하는 곳에서 편안한

까닭으로 補肺하면 곧 益腎할 수 있는 것이니, 실제로 이것은 의학이론에 있어서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sup>130)</sup>고 하였다.

② 氣

張潔古는 腎의 元氣를 補하는 약물로 ‘知母, 玄參, 補骨脂, 砂仁, 苦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腎臟은 水火의 氤氳之氣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先天의 橐籥을 간직하고 있어서, 水의 근원이요 木의 근본이기에, 이 몸의 元氣가 속에서 蘊育되고 있다. 이른바 肺가 氣化의 出納을 담당하는 것이나, 脾가 大氣의 斡旋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까닭으로 腎氣가 한 번 흡수되면 全體가 모두 그 병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sup>131)</sup>고 하였다. 다만 이곳에서 설명한 약재 중 몇가지 약물에 대해서는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니, “知母는 苦寒하면서 潤하여 腎家に 相火의 太過를 瀉하는 것인데, 潔古가 ‘補氣’ 조항 중에 열거한 것은 적당하지 않다. …… 玄參은 黑色이면서 腎藥으로 柔潤하면서 기름지기에 ‘滋補’할 수 있지만, 甘膩하면서 無氣하기에 ‘氣分’에 들어갈 수는 없다. …… 砂仁은 燥濕하기에 脾의 作用을 상해하게 하는 것이기에 腎藥으로 인정할 수 없다. …… 苦參은 진실로 濕火가 猖狂하는 것이 아니라면 잠시라도 사용하는 법이 없다.”<sup>132)</sup>고 하였다.

③ 血

張潔古는 腎의 眞陰을 補하는 약물로 ‘黃柏, 枸杞, 熟地黃, 鎖陽, 肉蓯蓉, 山茱萸, 阿膠, 五味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말하기를 “血은 陰의 무리이기에 肝·脾·腎 3臟의 眞陰을 滋養하는 것으로 補血하는 약물이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은 肝·脾 2臟과 함께 참고하되, 오로지 厚膩重濁한 것만 위주로 찾을 필요는 없다. 곧 ‘補腎之陰’이라고 말할 때, 味厚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下焦에 도달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滋填하고 攝納하는 것 중에 流行하고 運行하는 것을 힘써 찾아야만 窒滯하여 막히는

12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0.

12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30~831.

12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1.

13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2.

13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2.

13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32~833.

폐단이 없을 것이다.”<sup>133)</sup>고 하였으며, 다만 이곳에서 설명한 약제 중 黃柏에 대해서는 “大苦大燥하여 ‘濕火’를 다스리는 전문 약제이기에, 瀉火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補水할 수 있던 말인가? 潔古가 補血의 첫머리에 열거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 보통 사람은 생각해 낼 수 없는 일이다.”<sup>134)</sup>고 하였다.

### (3) 本熱攻之

#### ① 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熱이 이미 臟으로 들어왔다면 ‘清理’시킬 방법만 있지 ‘蕩滌’시킬 방법은 없다. 대개 攻下法은 腸胃에 있는 有形的 結을 通泄하는 것이지 無形的 火를 제거할 수는 없다. 仲景이 少陰病篇에서 大承氣湯으로 急下시키는 세 개의 조문을 둔 것은 腑에 積滯가 있어서 설계한 것이지, 腎臟의 蘊熱을 공격한 것이 아님이 ‘心下痛’<sup>135)</sup>과 ‘腹脹, 不大便’<sup>136)</sup>의 두 가지 조문을 연역해보면 진실로 낱낱이 드러난다. 潔古가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의 조항을 세운 것은 『傷寒論』 少陰病篇을 이어받아 온 것인데, 마침내 本臟의 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심하게 仲師의 本旨가 아니다. 臟이 진실로 灼傷하였다면 결단코 承氣湯의 芒硝나 大黃이 한 번에 攻下시킬 수 없다. …… 이것은 陽明病인데, 또한 腎이 ‘開竅於二陰’하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인 것으로, 通腑하는 것이 곧 腎臟의 熱을 泄下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오해이다.”<sup>137)</sup>고 하였다.

### (4) 本寒溫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腎은 비록 北方 寒水の 臟이지만 眞陽이 그 속에 살고 있어서 陰平陽秘한다면 원래 陰寒이 太過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오직 坎卦 중에 있는 陽氣가 한 번 쇠약해지면, 水寒이 用事하

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溫之하여 또한 그 固有한 陽和의 氣를 회복시키면, 봄이 돌아와서 곡식이 자라듯이 될 것이다. 반드시 燥烈이 太過한 것은 옳지 않으니 도리어 陰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sup>138)</sup>고 하였다.

#### ① 溫裏

張潔古는 溫裏하는 약물로 ‘附子, 乾薑, 官桂, 白朮, 蜀椒’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溫裏’하는 것이 곧 下文에 있는 ‘益陽’하는 것이니, 潔古가 두 갈래로 나눈 것은 의미가 없다.”<sup>139)</sup>고 보았다.

### (5) 標寒解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仲師가 말한 少陰病의 ‘發熱’이 少陰表證이고, 麻黃附子細辛湯이 곧 少陰表寒을 치료하는 것이니, 본래 外寒이 陰經에 직접 적중한 것이지 三陽經에서 傳來된 裏證이 아니다. 대개 十二經絡은 본래 모두 風寒이 外襲한 表病이 있는데, 經典에서 말한 ‘或中於陰, 或中於陽’<sup>140)</sup>이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된 것이 없다.”<sup>141)</sup>고 하였다.

#### ① 解表

張潔古는 解表하는 약물로 ‘麻黃, 細辛, 獨活, 桂枝’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少陰은 陰經이니까 진실로 太陽의 表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미 寒邪를 받게 되어 表에 邪氣가 있는 것은 表를 따라 몰아내어야 한다. 仲師가 少陰病의 表症에 역시 麻黃을 사용한 것은, 太陽病과 같은 것이 ‘表寒’이기에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오직 ‘經’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附子、細辛으로 보좌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sup>142)</sup>고 하였다.

### (6) 標熱涼之

#### ① 清熱

張潔古는 標를 清熱시키는 약물로 ‘玄參, 連翹,

13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3.  
13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3.  
135) 陳亦人 主編. 傷寒論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895.  
136) 陳亦人 主編. 傷寒論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897.  
13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4.

13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4.  
13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5.  
140)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516.  
14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5.  
14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5.

甘草, 猪膚'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腎家は 陰液이 불충분하면 대부분 氣火가 바깥쪽으로 浮越하여 經絡이 지나가는 곳을 따라 肌熱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肌膚에 熱象이 없더라도 病人이 스스로 薰蒸이나 燔灼感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이때에는 마땅히 腎水를 滋養하여 陽光을 억제시켜야 한다. 潔古가 ‘標熱’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약물로 玄參, 猪膚 등을 사용한 것을 보면 病情이 명료해진다.”<sup>143)</sup>고 하였다.

### 9. 命門

張潔古는 命門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火强瀉之, 火弱補之, 精脫固之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 (1) 火强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相火가 太過한 것이 腎火가 强한 것이니, 陽焰이 僨張하는 것이 오히려 實火가 아니며, 瀉法을 쓰는 것이 어찌 그 太過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火가 有餘한 것이 본래 陰이 적어서 못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하나, 水가 弱하고 火가 强한 것은 원래 서로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sup>144)</sup>고 하였다.

#### ① 瀉相火

張潔古는 相火를 瀉하는 약물로 ‘黃柏, 知母, 牡丹皮, 地骨皮, 生地黃, 茯苓, 玄參, 寒水石’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瀉火’는 그 태과한 것을 瀉하는 것으로, 단지 本義를 취하여 말해야지 滋陰을 끌어들이어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潔古가 生地黃과 玄參을 기록하여 滋陰하는 약물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본 조항의 올바른 뜻은 瀉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다.”<sup>145)</sup>라고 하였다.

#### (2) 火弱補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腎 중에 있는 眞陽이 실제로 내 몸 元氣의 根本이 된다. 이 火는 진실로 弱해져서는 안 되는데, 弱해지면 반드시 補해야 한다.

다만 蘊蓄含藏하는 것이 마땅하니 秘密스럽게 노출되지 않아야 거의 百年 동안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經典에서 말하기를 ‘陽密乃固’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陰平陽秘, 精神內治.’라고 하였으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옳다.”<sup>146)</sup>고 하였다.

#### ① 益陽

張潔古는 益陽하는 약물로 ‘附子, 肉桂, 益腎仁, 破故紙, 沈香, 川烏頭, 硫黃, 天雄, 烏藥, 陽起石, 茴香, 胡桃, 巴戟天, 丹砂, 當歸, 蛤蚧, 覆盆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陽이 과연 충분하지 못하면 마땅히 補해야 하는데, ‘益陽’하는 약물은 燥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신중히 살펴서 太過해서는 안 되니, 조금이라도 그 분량이 넘치면 ‘陽强不能密’하게 되어 쉽게 『素問』에서 警戒한 것을 침범하게 된다.”<sup>147)</sup>고 하였다.

#### (3) 精脫固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精竅를 빗장으로 단단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相火를 潛藏하지 못하여 疏泄이 무절제하게 되는 것이다.”<sup>148)</sup>고 하였다.

#### ① 澁滑

張潔古는 精의 滑脫을 澁精시키는 약물로 ‘牡蠣, 芡實, 金櫻子, 五味子, 遠志, 山茱萸, 蛤蚧’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과연 이것이 虛滑하여 收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澁斂시키는 약물을 적게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 肝家에 火가 항성하여 疏泄의 명령이 태과한 것이라면 澁斂하는 약물이 그 火焰을 도와서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할 것이다.”<sup>149)</sup>고 하였다.

### 10. 三焦

張潔古는 三焦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火瀉之, 虛火補之, 本熱寒之, 標熱散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14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6.

14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7.

14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7.

14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8.

14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38.

14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0.

14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0.

(1) 實火瀉之

張潔古는 三焦의 實火를 瀉하는 치료 방법으로 ‘汗, 吐, 下’의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三焦의 經脈은 少陽相火에 속하기에 火氣가 太旺하다면 자연히 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上中下의 三焦에 유여한 火는 각 臟腑 자체에 있는 증상이기에, 모든 臟腑의 虛實을 살펴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 某藥이 三焦를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150)</sup>고 하였다.

① 汗

張潔古는 上焦로 發汗시키는 약물로 ‘麻黃, 柴胡, 葛根, 荊芥, 升麻, 薄荷, 羌活, 石膏’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寒邪가 表部에 있으면 확실히 實證이기에 發汗시킬 수 있다. 그러나 汗法이 ‘瀉實火’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기록한 모든 약물들이 비록 모두 發汗시킬 수는 있지만, 본 조항의 제목인 ‘實火瀉之’의 네 글자를 살펴본다면, 제목과의 거리가 萬리나 떨어져 있으니, 潔古가 어찌 이와같이 사리에 밝지 못하단 말인가?”<sup>151)</sup>라고 하였다.

② 吐

張潔古는 上焦에 邪氣가 있을 경우 上吐시키는 약물로 ‘瓜蒂, 食鹽, 薑汁(깃짚은 풀의 즙)’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과연 痰이 肺胃를 막거나 食傷의 처음 시작일 때에는 吐法이 진실로 빠른 방법인데, 다만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면 胃氣를 擾亂시켜서 引動하여 陽氣를 浮越시키기에 禍가 더욱 극렬하다. 張子和<sup>152)</sup>의 서적에서는 다만 그 이로움만 말하고 그 폐단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의 서적을 읽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盲信하여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라.”<sup>153)</sup>고 하였다.

③ 下

張潔古는 下焦에 邪氣가 있을 경우 瀉下시키는 약물로 ‘大黃, 芒硝’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下法은 진실로 實證을 위해서 설계한 것이

지만, 實邪가 中焦에 있으면 宣化하고 疏通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갑자기 攻逐시키는 猛劑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仲景의 承氣湯은 반드시 大便이 堅硬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攻下하는 것이니 어찌 中焦를 치료하는 약물이겠는가?”<sup>154)</sup>라고 하였다.

(2) 虛火補之

張潔古는 三焦의 虛火를 補하는 치료 방법을 ‘上焦, 中焦, 下焦’와 연결된 3가지로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上焦를 補하는 약물로 ‘人參, 天雄, 桂心’을 제시하였고, 中焦를 補하는 약물로 ‘人參, 黃芪, 丁香, 木香, 草果’를 제시하였으며, 下焦를 補하는 약물로 ‘附子, 桂心, 硫黃, 人參, 沉香, 烏藥, 破故紙’를 제시하였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三焦는 火로써 일을 하기에 火가 진실로 不足한 것이 곧 正虛이니, 이미 虛火라고 말한다면 補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sup>155)</sup>고 하였다.

(3) 本熱寒之

張潔古는 上焦의 熱을 치료하는 약물로 ‘黃芩, 連翹, 梔子, 知母, 玄參, 石膏, 生地黃’을 제시하였고, 中焦의 熱을 치료하는 약물로 ‘黃連, 連翹, 生地, 石膏’를 제시하였으며, 下焦의 熱을 치료하는 약물로 ‘黃柏, 知母, 生地, 石膏, 牡丹皮, 地骨皮’를 제시하였다.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本熱’이 곧 ‘實火’인 것이고, ‘寒之’가 곧 ‘瀉火’인 것이다. 潔古가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중복된 것인데, 이곳에서 기록된 각 약물을 본다면 어찌 하나라도 瀉火하는 작용이 아니란 말인가?”<sup>156)</sup>라고 하였다.

(4) 標熱散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三焦經은 少陽相火이기에 ‘標寒’을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三焦는 上中下 세 가지를 속에 포함하고 있으니, 설사 熱病이 있더

15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6.  
15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6.  
15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9).  
15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7.

15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7.  
15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8.  
15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49.

라도 ‘清泄’시키는 것이 옳지 ‘發散’하는 것은 옳지 않다. 潔古의 이번 조항은 蛇足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아래에 있는 ‘解表’의 조항은 적합하지 않다.”<sup>157)</sup>고 하였다.

① 解表

張潔古는 解表하는 약물로 ‘柴胡, 細辛, 荊芥, 羌活, 葛根, 石膏’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熱이 少陽經에 있으면 이미 表散할 방법이 없다. 또한 三焦라는 두 글자는 본래 表에만 있는 질병이 아닌데 어찌 解表할 까닭이 있겠는가? 潔古가 이 하나의 조항을 설정한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첫머리에 예를 든 柴胡는 足少陽의 表寒에 사용하는 약물이니 三焦가 手少陽經이라고 하여 내키는 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sup>158)</sup>고 하였다.

### 11. 膽

張潔古는 膽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火瀉之, 虛火補之, 本熱平之, 標熱和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1) 實火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膽은 相火로 用事하기 때문에 火證이 많고 寒證이 적다. 다만 火에는 虛實의 구분이 있으니, 實火에 속해야 瀉할 수 있다.”<sup>159)</sup>고 하였다.

① 瀉膽

張潔古는 瀉膽하는 약물로 ‘龍膽草, 牛膽, 豬膽, 生蓴仁, 生酸棗仁, 黃連, 苦茶’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膽病은 火가 많고 寒이 적으며, 瀉肝하거나 瀉膽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sup>160)</sup>고 하였다.

(2) 虛火補之

張山雷가 말하기를 “陰虛한 자는 火가 저장되지 않으니 虛火인 경우에 補할 수 있는 것으로, ‘補虛

하는 것이지 ‘補火’하는 것은 아니다. …… 潔古는 이 하나의 조항을 만들면서 下文에서 ‘溫膽’이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오해가 있는 것이다.”<sup>161)</sup>고 하였다.

① 溫膽

張潔古는 溫膽하는 약물로 ‘人參, 細辛, 半夏, 當歸, 炒蕤仁, 炒酸棗仁, 地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膽氣가 虛寒하다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으로, 고대에 ‘膽寒’이라고 부른 것은 비유하자면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寒心家’라고 할 때의 寒을 말하는 것이지 어찌 ‘寒涼’이라고 할 때의 寒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곧 옛날의 醫書에서 ‘溫膽’이라고 명명한 것들 중에는 실제로 膽을 溫하게 하는 약물이 없다. 설사 肝腎의 陰이 衰弱해서 虛火가 浮動한 것이라면 眞陰을 滋養하여 相火를 涵斂하는 것이니 肝·腎 두 臟의 치법이 膽火門 중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潔古가 이 조항에서 약물로 人參, 當歸, 地黃을 사용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다.”<sup>162)</sup>고 하였으며, 또한 ‘溫膽’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肝膽의 陰虛火動이라는 제목으로 본다면, 치법이 ‘收攝’하는 것에 있지 ‘滋補’하는 것에 있지 않다. ‘溫膽’이라는 名目を 제거하고 ‘攝納’이라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만 못하니, 곧 浮陽하는 것을 涵斂하는 것이어서 ‘虛火’라는 두 글자와 완전히 서로 일치하며, 예를 들어 酸棗仁, 白芍藥, 山茱萸肉, 烏梅, 龍骨, 牡蠣와 같은 것들이 모두 肝膽虛火에 반드시 필요한 약품이니,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아서 用藥의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sup>163)</sup>고 하였다.

(3) 本熱平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本熱’은 원래 ‘實火’와 별 차이가 없으니, 下文에서 말한 ‘除火’도 역시 ‘瀉火’와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쓸데없이 중복한 것이니 삭제하는 것이 옳다.”<sup>164)</sup>고 하였다.

15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1.  
15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2.  
15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6.  
16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6.

16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7.  
16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7.  
16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7.  
16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8.

① 除火

張潔古는 除火하는 藥物로 ‘黃芩, 黃連, 芍藥, 連翹, 甘草’를 제시하였는데, ‘實火瀉之’에서 말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② 鎮驚

張潔古는 鎮驚하는 藥物로 ‘黑鉛, 水銀’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驚은 心神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鎮怯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 生理와 病理로 말할 것 같으면 실제로 肝膽과 관계가 없다. 徐之才의 ‘用藥十劑’<sup>165)</sup>에는 ‘重劑’에 鎮怯에 대한 하나의 조항이 있다.”<sup>166)</sup>고 하였다.

(4) 標熱和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少陽 肝膽은 그 本病이 火가 많고 寒이 적기 때문에, 비록 傷寒의 邪氣가 少陽으로 傳入되면 그 증상으로 口苦, 耳聾, 目眩이 나타나는데, 肝膽의 橫逆하는 火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標寒’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sup>167)</sup>고 하였다.

① 和解

張潔古는 和解하는 藥物로 ‘柴胡, 芍藥, 黃芩, 半夏, 甘草’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少陽은 火에 속하기에 發散하면 안 되는데, 發散하면 火焰의 형세가 더욱 극렬해지면서 禍가 지극히 熾盛하게 된다. 古人들이 말한 ‘和解’의 解자는 원래 ‘解表’의 解자와 완전히 다르다.”<sup>168)</sup>고 하였다.

12. 肝

張潔古는 肝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有餘瀉之, 不足補之, 本熱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1) 有餘瀉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膽의 木火는 최고로 쉽

게 橫逆하기에 氣가 衝激하거나 火가 燔灼하는 것이 모두 有餘에 속하기 때문에 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아래에 5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① 瀉子

張潔古는 瀉子하는 藥物로 ‘甘草’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의 子是 心火가 되는데, 무릇 瀉心하는 藥物은 肝火를 瀉하는 것을 겸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苦寒한 藥物로 泄降시키는 것이 본래 實火를 통치하는 방법이니, 예를 들면 黃芩, 黃連, 牡丹皮, 梔子の 종류와 같은 것으로 약품이 매우 많다. 그러나 潔古는 단지 甘草 한 가지 藥物만 기록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치는 명백하니 舉一反三한 것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sup>169)</sup>고 하였다.

② 行氣

張潔古는 行氣하는 藥物로 ‘香附, 川芎, 瞿麥, 牽牛, 青橘皮’를 제기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이 有餘한 것은 비록 ‘肝火’나 ‘肝風’으로 질병이 된다고 말하지만, 風火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氣焰이 크게 왕성해야만 風火가 치성하는 것이니, 肝이 有餘한 까닭은 실제로 氣가 有餘한 것이다. 그러므로 瀉肝하면서 理氣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苦寒한 藥物로만 도리어 氣를 꺾어버리면, 도리어 鬱遏閉塞의 고통이 생기면서 肝이 더욱 橫逆하게 된다.”<sup>170)</sup>고 하였다.

③ 行血

張潔古는 行血하는 藥物로 ‘紅花, 鱉甲, 桃仁, 莪朮, 京三棱, 穿山甲, 大黃, 水蛭, 虻蟲, 蘇木, 牡丹皮’를 제시하였는데, 趙雙湖는 “破血이 곧 行血이다.”<sup>171)</sup>고 하였지만,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血은 氣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니 氣는 血의 統帥가 된다. 肝絡의 氣가 막히면 血行도 역시 막히는 까닭으로 ‘行血’ 또한 肝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行’이라는 것은 본래 流利하게 疏通시킨다는 뜻이니, 循環의 항상됨이 그치는 것을

165) 李飛 主編. 方劑學(上冊). 人民衛生出版社. 2017. p.56.  
“徐之才曰: 藥有宣·通·補·泄·輕·重·澀·滑·燥·濕十劑.”

16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9.

16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9.

16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59.

16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3.

17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3.

17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5.

회복시키는 것이지 오로지 ‘破瘀血’하는 것으로만 이론을 세울 수는 없다.”<sup>172)</sup>고 하였다.

④ 鎮驚

張潔古는 鎮驚시키는 약물로 ‘雄黃, 金箔, 鐵落, 珍珠, 代赭石, 夜明砂, 胡粉, 銀箔, 鉛丹, 龍骨, 石決明’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膽의 火가 상승하면 온갖 변환이 생기기에 驚狂, 癲癇과 같은 것이 肝家의 질병이 아닌 것이 없다. 실제로는 서양의학에서 血이 腦神經을 충동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 것으로, 『素問』에는 일찍이 ‘上實下虛, 爲厥癲疾’<sup>173)</sup>이라는 명확한 문장도 있다. 무릇 神志가 迷蒙하거나 痰涎이 壅塞하는 것은 모두 氣가 상승함으로써 火도 상승하여 생기는 것이니, 상승하기만 하고 하강하지 않기에 병증이 殘虐해지는 것이다. 진실로 이 升騰하는 氣火를 鎮攝할 수만 있다면 上衝하는 火焰의 세력도 그치면서 腦神經이 충격을 받지 않게 된다. …… 潔古가 이 하나의 조항을 세워서 肝火上逆이나 肝風上揚은 鎮靜시키지 않으면 안됨을 명확하게 알린 것인데, 다만 鎮墜시키는 방법은 쓰임이 매우 많아서 겨우 驚狂, 癲癇의 몇가지에만 한정시킬 수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腦神經의 병리기전을 밝힘에 있어 鎮攝시키는 공로가 최고로 크기 때문에 곧바로 ‘鎮攝’이라는 두 글자로 標題를 삼는 것만 못하니, 이렇게 해야 病情과도 비교적 밀접하면서 肝臟의 病源에도 또한 저촉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sup>174)</sup>고 하였다.

⑤ 搜風

張潔古는 搜風하는 약물로 ‘羌活, 荊芥, 薄荷, 槐子, 蔓荊子, 白花蛇, 獨活, 皂莢, 烏頭, 防風, 白附子, 僵蠶, 蟬蛻’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을 風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德性으로써 말하는 것으로, 그 氣가 堅強하면서 최고로 쉽게 橫逆하므로 肝陽이 한 번 요동하면 風으로 변화하여 上揚하면서 많은 變幻이 생기기 때문이니, 이것은 내부에서 ‘自動한 風’을 말하는 것이지 ‘外來의 風’이라

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원래 風이 요동하는 까닭은 肝木의 邪氣가 有餘해서이니 潔古가 마땅히 瀉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바른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미 내부에서 自動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瀉한다는 것은 내부로 그치게 하여 攝納涵藏시킴으로써 平靜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결단코 煽揚함으로써 그 세력을 더욱 膨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肝風의 질병에 表藥이나 風藥 및 모든 升散시키는 약물을 절대로 망령되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潛陽熄風’이라는 네 글자가 최근에 이미 형성된 醫學 중의 커다란 본체와 작용에 해당되니, 진실로 國門에 걸어들고서 한 글자도 가감할 수 없는 철칙이다. 그러나 종전의 醫家들은 한결같이 風病이라고 말하면서 風藥을 사용하였으니, 漢·唐대의 醫家에서부터 元·明代까지 어찌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의학계의 수천 년에 있어 절대적인 암흑기였던 것이다. …… 潔古가 이곳에서 ‘搜風’이라고 標題를 삼고, 약물로 烏頭, 白附子, 羌活, 防風 등을 사용한 것은 肅殺시키는 ‘寒風’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蘊隆하는 ‘風火’를 치료하지는 못할 것이니, 肝臟에서 自動하는 風病에 있어 백해무익할 것이다. ‘搜風’이라는 명칭에 큰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거한 약물들도 肝臟에서 自動한 風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sup>175)</sup>고 하였다.

(2) 不足補之

張潔古는 肝虛를 補하는 방법으로 ‘補母, 補血, 補氣’의 3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① 補母

張潔古는 補母하는 약제로 ‘枸杞, 杜仲, 狗脊, 熟地黃, 苦參, 葶藶, 阿膠, 菟絲子’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과 腎을 비록 ‘母子相生’ 관계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도 下焦에 있는 眞陰으로써 事理가 서로 통한다. 肝陽은 쉽게 太過해지는 까닭으로 補法이 없으나, 陽이 왕성한 것은 곧 陰이 휴손되어서 생긴 것이니, 肝腎의 眞陰을 滋養하면 浮

17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5.

173)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p.114.

17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8.

17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71~872.

越하는 虛焰을 涵藏할 수 있다.”<sup>176)</sup>

② 補血

張潔古는 補肝血하는 藥物로 ‘當歸, 牛膝, 續斷, 白芍藥, 血竭, 沒藥, 川芎’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은 모름지기 血로 길러주어야 하는데, 陰血이 모자라지 않다면 肝木을 涵藏하여 妄動하지 못한다.”<sup>177)</sup>고 하였다.

③ 補氣

張潔古는 補氣하는 藥物로 ‘天麻, 柏子仁, 蒼朮, 菊花, 細辛, 密蒙花, 決明, 穀精草, 生薑’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木의 성질은 條達을 좋아하기에 막히면 안 되는데, 막히게 되면 鬱結하여 펼쳐지지 못하여 또한 橫行하는 근심이 생긴다. 오직 이미 橫行한다면 또한 마땅히 어루만져서 유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시 氣藥을 사용하여 剛燥함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氣가 더욱 橫行하면서 血이 더욱 손상받게 된다. 그러므로 肝의 氣分에는 반드시 補藥이 없는 것이니, 옛날 사람이 말한 ‘肝無補法’이라는 것은 바로 肝의 氣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潔古는 他臟의 예를 끌어당겨서 ‘補血’과 ‘補氣’를 두 개의 강령으로 나열한 것이니, 마땅히 이 조항에서 선택한 藥物이 순수할 수 없게 된 이유이다.”<sup>178)</sup>고 하였다.

(3) 本熱寒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은 厥陰風木으로 안에는 相火를 저장하고 있으니, 요동하면 熱이 되므로 단지 火病만 있고 寒病이 없는 것이다. 肝病을 치료하는 자가 溫補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sup>179)</sup>고 하였다.

① 瀉木

張潔古는 瀉木하는 藥物로 ‘芍藥, 烏梅, 澤瀉’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熱은 清熱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清火瀉靑하는 藥物을 함께 이 조항에 넣는 것이 어찌 명분이 정당하면서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潔古는 ‘瀉木’과 ‘瀉火’를 두 가지로 나누었으니 쓸데 없는 군더더기라는 혐의가 있다. …… 오직 烏梅, 芍藥, 黃肉의 酸味는 능히 肝膽의 浮越하고 散耗하는 氣火를 收攝할 수 있으며, 또한 그 橫逆하는 세력을 柔順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瀉肝하는 것은 아니다.”<sup>180)</sup>고 하였다.

② 瀉火

張潔古는 瀉火하는 藥物로 ‘黃連, 龍膽草, 黃芩, 苦茶, 豬膽’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瀉火’라고 명명하고 藥物로는 苦寒한 것을 사용하였으니, 병중에 대하여 藥物을 표현한 것이 탁 트이어서 흰하면서 명료하다.”<sup>181)</sup>고 하였다.

③ 攻裏

張潔古는 攻裏하는 藥物로 ‘大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攻裏’는 본래 腑를 소통시키는 것이기에 腑實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臟病을 치료할 수는 없다. 오직 肝熱이 크게 치성하면서 또한 陽明病의 閉塞을 겸하고 있는 자는, 通腑가 腑實을 위해 설정한 것이지만 有餘한 相火를 인도하여 泄下할 수 있다.”<sup>182)</sup>고 하였다.

(4) 標熱發之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肝熱한 것이 本病이기에, 곧 厥陰 絡脈의 질병도 肝氣가 橫逆하여 함부로 잔학하게 행동하는 것이니, 肝經의 질병은 결코 ‘發散’시켜야 할 이치가 없다. 곧 ‘邪入厥陰’이라고 말할 때에는 外感의 邪氣가 厥陰經에 없다고 할 수 없지만, 傳入하여 된 厥陰 등의 병증에는 『傷寒論·厥陰篇』 중에 또한 인제 ‘發散’이라는 분명한 문장이 있단 말인가? 潔古가 말한 ‘標熱發之’는 실제로 큰 오류이다. 어찌 肝經에 熱이 熾盛한데 宣發함으로써 橫行함을 도와줄 이치가 있겠는가? 下文에서 ‘和解’와 ‘解肌’의 두 가지로 나눈 것은 모두 隔靴搔癢하는 것과 같으니, 실제 病理와는 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sup>183)</sup>고 하였다.

176)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4.

177)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5.

178)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6.

179)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7.

180)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8.

181)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8.

182)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9.

① 和解

張潔古는 和解하는 약물로 ‘柴胡, 半夏’를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少陽病의 和解는 실제로 外寒이 막고 억제하여 少陽의 氣火가 疏達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少陽相火가 이미 왕성한데 柴胡로 升發하는 것은 아니다.”<sup>184)</sup>고 하였다.

② 解肌

張潔古는 解肌하는 약물로 ‘桂枝, 麻黃’을 제시하였는데, 張山雷가 설명하기를 “足厥陰經에 潔古가 ‘解肌’의 약물 사용 법칙을 둔 것은 지극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解肌’라고 말하고선 또한 麻黃, 桂枝의 두 가지 약물이라고 한 것은 더욱 奇想天外하여 어찌 이런 기이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sup>185)</sup>고 하였다.

### Ⅲ. 考察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臟腑별로 구분하여 原因, 治法, 藥物의 性質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肺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肺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氣實瀉之	瀉子	膀胱消導
	除濕	除濕消痰
	瀉火	肺熱清泄
	通滯	化痰滌飲 宣絡順氣
氣虛補之	補母	健脾養胃
	潤燥	甘寒潤燥
	斂肺	① 收斂肺氣 ② 滋腎固澁
本熱清之	清金	苦寒, 甘寒
本寒溫之	溫肺	溫脾胃
標寒散之	解表	辛溫解表

183)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9.

184)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9.

18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9.

標熱疏之*	疏散	辛涼疏散
-------	----	------

\* 張潔古가 빠뜨린 내용을 張山雷가 보충한 것

肺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氣實瀉之, 氣虛補之, 本熱清之, 本寒溫之, 標寒散之의 5가지로 나누었는데, 張山雷는 ‘標熱疏之’의 항목을 하나 더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니, “風熱의 邪氣도 또한 皮毛로부터 침입하면 肺經이 邪氣를 받기 때문에, 이때에는 辛涼한 약물로 疏泄시키면서 肺鬱을 宣發하고 皮毛를 開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표2】 大腸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大腸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腸實瀉之	熱 (≒ 瀉熱)	潤腸通便 苦寒泄熱 消癥逐水
	氣 (≒ 理氣)	行氣導滯
腸虛補之	氣 (≒ 氣虛)	補氣
	燥 (≒ 潤燥)	養血
	濕 (≒ 燥濕)	清理, 溫理
	陷 (≒ 升舉)	升陽益氣
脫 (≒ 收斂)	固澁, 補脾腎	
本熱寒之	清熱	清火養正
本寒溫之	溫裏	溫養脾胃
標熱散之	解肌 ⇒ 清泄 <sup>§</sup>	清泄宣化

§ 張潔古의 잘못된 표현을 張山雷가 수정한 것

大腸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腸實瀉之, 腸虛補之, 本熱寒之, 本寒溫之, 標熱散之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치법에 있어서 단순하게 ‘熱’, ‘氣’, ‘燥’, ‘濕’, ‘陷’, ‘脫’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였으며, ‘標熱散之’의 치법에서 제시한 ‘解肌’는 잘못된 표현이며, 熱이 肌肉에 있으면 ‘清泄’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疏散’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표3】 胃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胃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胃實瀉之	濕熱	快胃健脾

	( <small>138</small> 瀉濕熱)	清熱燥濕 潤腸通便
	飲食 ( <small>138</small> 治食積)	消積導滯
	痰飲* ( <small>138</small> 祛痰)	開痰滌飲
胃虛補之	濕熱‡	
	寒濕 ( <small>138</small> 溫中)	健脾燥胃
	胃陰* ( <small>138</small> 養胃陰)	甘平柔潤
本熱寒之	降火	清胃降火
標熱解之	解肌 ⇒ 清泄§	和中解外

\* 張潔古가 빠뜨린 내용을 張山雷가 보충한 것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 張潔古의 잘못된 표현을 張山雷가 수정한 것

胃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胃實瀉之, 胃虛補之, 本熱寒之, 標熱解之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치법에 있어서 ‘胃實瀉之’ 중 ‘痰飲’에 대한 치료 방법이 빠져있음을 보충하였다. ‘胃虛補之’의 치료법 중 ‘濕熱’의 항목은 ‘胃實瀉之’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대신 ‘胃陰’의 부족으로 인한 병증이 빠져있음을 보충하였다. ‘標熱解之’의 치법에 있는 ‘解肌’도 같은 陽明病인 大腸病에서와 마찬가지로 ‘清泄’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표4】 脾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脾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土實瀉之	瀉子	肺金清肅
	吐‡	
	下‡	
土虛補之	補母	養心益血
	氣 ( <small>138</small> 理氣)	醒胃快脾
	血 ( <small>138</small> 補血)	養血益陰 + 溫和
本濕除之	燥中宮 (燥濕)	健脾除濕
	潔淨府 (利水)	通利除濕
標濕滲之	開鬼門 (發汗)	發汗 利小便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脾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土實瀉之, 土虛補之, 本濕除之, 標濕滲之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치법에 있어서 ‘土實瀉之’에 있는 ‘吐’법이나 ‘下’

법은 腸胃의 實을 蕩滌하는 것이지 理脾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潔古가 이곳에 나열한 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표5】 心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心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火實瀉之	瀉子	瀉脾濕熱
	氣 ( <small>138</small> 瀉氣分火)	氣清性涼
	血 ( <small>138</small> 瀉血分火)	性寒涼血
神虛補之	鎮驚	鎮攝滌痰
	補母	補腎養肝
	氣 ( <small>138</small> 補心氣)	扶益心氣
本熱寒之	血 ( <small>138</small> 補心血)	滋養心血
	瀉火	苦寒, 甘寒
標熱發之	涼血	‘瀉血分火’ 와 重複됨
	散火 ⇒ 清理§	清熱泄化

§ 張潔古의 잘못된 표현을 張山雷가 수정한 것

心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火實瀉之, 神虛補之, 本熱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치법에 있어서 ‘標熱發之’에 있는 ‘散火’법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心 經絡에 있는 熱病은 마땅히 ‘清理’를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니, 心臟의 火를 清熱하는 약물이 또한 經絡에 있는 熱도 泄化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6】 小腸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小腸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實熱瀉之	氣 ( <small>138</small> 瀉氣分熱)	瀉心清胃
	血 ( <small>138</small> 瀉血分熱)	苦泄宣通
虛寒補之	氣 ( <small>138</small> 補氣分滯)	行氣行滯
	血 ( <small>138</small> 補血分寒)	活血補血
本熱寒之	降火	清而導之
標熱散之	解肌	發散風寒 辛涼解表

小腸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熱瀉之, 虛寒補之, 本熱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표7】膀胱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膀胱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實熱瀉之	泄火	淡滲清熱
下虛補之	熱 (☞ 滋陰)	清熱滋陰
	寒 (☞ 溫養)	溫養收澀
本熱利之	降火	清熱通利
標寒發之	發表	發散風寒

膀胱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熱瀉之, 下虛補之, 本熱利之, 標寒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표8】腎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腎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水強瀉之	瀉子 <sup>‡</sup>	
	瀉腑	瀉膀胱濕熱
水弱補之	補母	補肺益腎
	氣 (☞ 補元氣)	壯元陽
	血 (☞ 補眞陰)	滋腎水
本熱攻之	下 <sup>‡</sup>	
本寒溫之	溫裏	益腎陽
標寒解之	解表	發散風寒
標熱涼之	清熱	滋養腎水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腎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水強瀉之, 水弱補之, 本熱攻之, 本寒溫之, 標寒解之, 標熱涼之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치법에 있어서 ‘水強瀉之’에 있는 ‘瀉子’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腎水の 子는 肝木이고, 肝에 太過한 氣化가 있다면 마땅히 瀉해야 하는데, 肝木의 氣火를 瀉하는 것이 ‘水強’ 두 글자와 어떤 부분이 딱 들어맞는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腎強瀉子’의 네 글자가 말이 안 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本熱攻之’에 있는 ‘下’법의 경우 “대개 攻下法은 腸胃에 있는 有形의 結을 通泄하는 것이지 無形의 火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변을 소통하는 것과 腎臟의 熱을 泄下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다.

【표9】命門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命門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火強瀉之	瀉相火	滋陰降火
火弱補之	益陽	蘊蓄含藏
精脫固之	澀滑	澀精止瀉

命門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火強瀉之, 火弱補之, 精脫固之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표10】三焦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三焦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實火瀉之	汗 <sup>‡</sup>	
	吐	涌吐痰涎
	下	瀉滌腸胃
虛火補之	上	補心肺
	中	補脾胃
	下	補肝腎
本熱寒之	上	清心肺熱
	中	清脾胃熱
	下	清肝腎火
標熱散之	解表 ⇒ 清泄 <sup>§</sup>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 張潔古의 잘못된 표현을 張山雷가 수정한 것

三焦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火瀉之, 虛火補之, 本熱寒之, 標熱散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치법에 있어서 ‘實火瀉之’에 있는 ‘汗’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上中下の 三焦에 유여한 火는 각 臟腑 자체에 있는 증상이기에, 모든 臟腑의 虛實을 살펴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汗法은 表證을 치료하는 방법이지 臟腑의 實火를 瀉하는 방법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標熱散之’에 있는 ‘解表’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三焦는 上中下 세 가지를 속에 포함하고 있으니, 설사 表에 熱病이 있더라도 ‘清泄’시키는 것이 옳지 ‘發散’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표11】 膽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膽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實火瀉之	瀉膽	瀉肝膽熱
虛火補之	溫膽	攝納虛火
本熱平之	除火 <sup>‡</sup>	
	鎮驚	鎮心安神
標熱和之	和解	和解少陽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膽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實火瀉之, 虛火補之, 本熱平之, 標熱和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치법에 있어서 ‘本熱平之’에 있는 ‘除火’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本熱’은 원래 ‘實火’와 별 차이가 없으니, ‘除火’도 역시 ‘瀉膽’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서 쓸데없이 중복된 것이라고 보았다.

【표12】 肝의 標本病을 치료하는 藥物의 성질

肝病		
原因	치법 분류	약물 성질
有餘瀉之	瀉子	瀉心火
	行氣	理氣瀉肝
	行血	破瘀行血
	鎮驚	清肝膽火
	搜風 ⇒ 熄風 <sup>§</sup>	潛陽熄風
不足補之	補母	滋養肝腎
	補血	補肝血
	補氣 <sup>‡</sup>	
本熱寒之	瀉木	清火瀉肝
	瀉火	瀉肝膽火
	攻裏	通腑, 瀉肝熱
標熱發之 <sup>‡</sup>	和解 <sup>‡</sup>	
	解肌 <sup>‡</sup>	

§ 張潔古의 잘못된 표현을 張山雷가 수정한 것

‡ 張山雷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한 것

肝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有餘瀉之, 不足補之, 本熱寒之, 標熱發之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치법에 있어서 ‘有餘瀉之’에 있는 ‘搜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外感의 風이 아닌 內動한 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攝納涵藏시킴으로써 平靜하게 만드

는 것이 옳지, 결단코 煽揚함으로써 그 세력을 더욱 膨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潛陽熄風’하는 약물로 안정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不足補之’에 있는 ‘補氣’법에 대해 설명하기를 “木의 성질은 條達을 좋아하기에 막히면 鬱結하여 橫行하는 근심이 생기는 것이 병리적인 특징이므로 다시 氣藥을 사용하여 剛燥함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標熱發之’에 있는 ‘和解’와 ‘解肌’법에 대해 설명하기를 “어찌 肝의 經絡에 熱이 熾盛한데 宣發함으로써 橫行함을 도와줄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和解’와 ‘解肌’의 두 가지 방법은 肝의 病理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IV. 結論

지금까지 張山雷의 『臟腑藥式補正』을 통하여 張潔古가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서 臟腑를 標本으로 나누고, 虛實·寒熱에 따른 藥物을 운용한 특징과 그 중 잘못 운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臟腑病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각 장부의 生理機能 및 病理機轉의 특징을 잘 분석하여 病證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타 臟腑와의 연관 관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둘째, 治法의 分類에 있어서 重複되거나 意味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重複된 것을 서로 비교 설명하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用語의 사용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臟腑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택한 藥物들의 분류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들을 잘 설명하였고, 혹시 構成 藥物 중 잘못 들어간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 근거를 찾아서 수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山雷는 張潔古가

臟腑의 用藥式에 대한 분류만 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病證이 생기는 病機와 그 병증을 치료하는 藥物의 主治 효과에 대하여 條項마다 세세하게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辨證이 분명하고, 用藥에 대한 분석이 투철하며, 張潔古의 의학 이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補正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五臟의 病證을 치료하면서 藥物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References

1.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대성의학사. 2011.
2.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周珉出版社. 2002.
3. 李飛 主編. 方劑學(上). 人民衛生出版社. 2017.
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5. 張壽頤. 張山雷醫集(上).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7. 陳亦人 主編. 傷寒論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8.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法人文化社. 2009.
9. 金容辰 外1人.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4. 1990.
10. 金鍾鉉 外3人.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의 標本病 구분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26(4). 2013.
11. 宋美令 外1人.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1(1). 1998.